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9년 2월
석사학위논문

아랍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초급과정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아랍이슬람학과

김 정

아랍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초급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eaching Korean Language
for the Arab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lementary level-

2009년 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아랍이슬람학과

김 정

아랍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 초급과정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사 회 만

이 논문을 어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아랍이슬람학과

김 정

- 목 차 -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2
제2장 한국어와 아랍어의 음성학적 특징	6
제1절 한국어 자음과 모음	6
제2절 아랍어의 자음과 모음	14
제3절 발음 및 철자 오류 분석	21
제3장 한국어 격조사와 아랍어 격의 특징	31
제1절 한국어 격조사	31
제2절 아랍어 격	38
제3절 한국어 격조사와 아랍어 격의 오류 분석	51
제4장 한국어와 아랍어의 통사론적 특징	55
제1절 한국어의 어순	55
제2절 아랍어의 어순	60
제3절 어순 오류 분석	63

제5장 결론	69
참고문헌	71
부록1. 제1차 설문조사	73
부록2. 제2차 조사	75

- 표 목차 -

<표 1> 한국어의 자음 체계	8
<표 2> 한국어의 모음 체계	12
<표 3> 아랍어의 자음 체계	16
<표 4> 아랍어의 모음 체계	21
<표 5> 음절에서 모음 오답률과 오답 유형	28
<표 6> 음절에서 자음 오답률과 오답 유형	29
<표 7> 한국어의 조사	32

- 그림 목차 -

<그림 1> 한국어 자음의 조음 위치	10
----------------------------	----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Korean Language for the Arabs

Kim Jeong

Adviser: Prof. Sah, Hee-Man, Ph.D.

Department of Arabic and Islamic Studie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epare basic data for developing efficient teaching method, tools, and texts at the sites of education by predicting difficulties in learning Korean language among Arabian learners. For this end, I have tried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by conducting questionnaire survey with the object of students of Korean language department of Ain Shams University in Egypt through analysis of error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after examining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and Arabic language with totally different linguistic system such as phonetics, morphology, and syntax.

In Chapter 1, the purpose and research method were explained and motivation and study plan of Arabian students who are learning Korean language, were investigated through 'preliminary survey' implemented as the primary questionnaire survey for analyzing errors.

In Chapter 2, characteristics of Korean vowels and consonants, and Arabic

vowels and consonants were investigated from the aspect of phonetics from the students studying Korean language. As the result, in case of consonants of Korean language, it was found out that students have difficulties in pronouncing between usual sound-strong, sound-hard consonant which do not exist in Arabic language and in case of vowels, there were many students who made mistakes in diphthong because of a simple vowels system of Arabic language.

In Chapter 3, from the aspect of morphology,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case particle and Arabic language case were investigated. It was found out that Arabic language is composed of three cases of subject, possession, and object but, on the contrary, Korean language is more diverse with six cases particles. In errors analysis with the object of the students learning basic level Korean language, it was found out that they made mistakes in honorific expression method, location indication case particles of Korean language such as ‘Ee/에’ and ‘Eseo/에서’, and indication of materials or means such as ‘-gae/로/개/로’, and object cases of ‘-eul/을/reul/를.’

In Chapter 4, from the aspect of syntax, characteristics of order of sentence of the both languages were investigated. All both languages belong to languages with relatively free order of sentences but it was found out that basically, Korean language has an order of sentences of SOV (Subject+Object+Verb) and Arabic language has VSO. (Verb+Subject+Object) It was originally expected that there may be lots of mistakes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an order of sentences of the both languages, but the result of error analysis demonstrated that errors related to an order of sentences were not that many. Rather, there were lots of mistakes in lower grammar parts of usual prepositions level such as meanings of vocabularies and tenses.

In Chapter 5, the contents of this thesis were summarized and I wish that this thesis can be of help for preparing the found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in Arab.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의의

최근에 한국과 아랍의 교류가 점차로 증대함에 따라 아랍지역에서의 한국어 학습 열풍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어가 아랍인들의 관심을 본격적으로 끌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 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경제교역의 증가와 한국 관광객의 증가는 아랍인들 사이에서 한국어에 대한 학습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현재 한국어 교육은 요르단, 모로코, 수단, 이집트 등 아랍 4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그 중 아랍 세계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간주되는 이집트의 아인샤스대학은 중동지역 대학으로서 최초로 2005년 9월 한국어과를 개설했고, 2008년 현재 한국어과 재학생 수는 8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집트 관광명소 중 하나인 룩소르의 관광호텔 고등교육원에서도 한국어 전공이 생길 예정이다.

이집트와 두바이 등의 아랍현지 방송국에서는 한국의 인기 드라마들이 방영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한류 위성방송인 코리아TV가 개국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방송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중동지역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 과정이 지속적으로 개설되고 있고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오류 분석을 통해 아랍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 시 부딪치게 될 어려움과 오류의 원인을 고찰하는 것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글자 그대로 학습자에게 있어 생소한 하나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수-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때의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은 학습자이다. 즉 학습자의 연령, 교육정도, 한국어에 대한 능력 정도,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과 목표, 학습자의 계획된 학습 기간, 학습자의 모국어 등이 모두 고려되어 학습자 중심 맞춤형 교육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아랍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그 역사가 짧은 관계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환경이나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교육내적인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방법과 이에 필요한 교재 개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아랍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상의 난점을 예측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효율적 교육 방법과 교재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아랍어의 특징을 먼저 고찰한 후, 이집트 아인삼스대학교 한국어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오류분석을 통해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한국어는 몽골어, 터키어, 통구스어, 만주어 등과 함께 알타이어 계통 언어이다.¹⁾ 이들 언어와 함께 한국어는 첨가어로서의 특징이 있고, 모음조화와 두음법칙이 있으며 관계대명사나 접속사가 없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아랍어는 불연속 형태소가 어근에 삽입되어 어간이 형성되는 내부굴절어 또는 삽입어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아랍어의 특징을 기술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학습자 오류의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오류 분석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학습상의 난점을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오류 분석에 의해 오류의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아랍인 학습자의 오류를 찾아 외국어로서의 초급과정 한국어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

조사 연구는 두 차례에 걸쳐서 행해졌다. 1차 조사는 ‘예비 조사’로 설문 조사 방식을 이용했으며, 2차 조사는 실험 연구를 통해 실시하였다.²⁾

1)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5), p. 24.

2) 설문조사와 실험 연구 문항은 부록을 참조.

1차 조사는 2008년 6월에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 한국어과 44명의 학생³⁾과 이집트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아랍인 66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동기 및 학습계획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질문 1. 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까?

한국어과 학생들의 상당수는 ‘일/공부’를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한국어에 관한 관심’,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 등의 순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였다고 답하였으나 이집트 한국대사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일반인들은 ‘일/공부’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

질문 2. 얼마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까?

한국어과 학생들은 1학년과 2학년에서 전공인 한국어를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습득 하였으나 이집트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일반인들은 학습기간이 적게는 1달에서 1년 사이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질문 3.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가. 말하기 53/110명
- 나. 듣기 46/110명
- 다. 읽기 3/110명
- 라. 쓰기 8/110명

위 질문에서는 학습기간이 짧을수록 말하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학습기간이 길어질수록 쓰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생겼다.⁴⁾

3) 1학년 25명, 2학년 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4) 이집트 아인샴스대학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쓰기를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집트 한국 대사관에서 공부 중인 학생 중 기간이 1주 ~ 1년 사이의 학생들은 말하기를 선택하였으나 1년 이상의 학생들은 쓰기를 선택하였다.

질문 4.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가. 말하기 9/100명
- 나. 듣기 5/110명
- 다. 읽기 44/110명
- 라. 쓰기 52/110명

위 질문에서는 학습기간이 짧을수록 쓰기와 읽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초급수준의 쓰기 교육이 단문에 그치는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어를 배우는 아랍인들은 말하기와 듣기 영역에서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질문 5. 한국어과를 졸업한 후 또는 수료 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공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랍인 학생들은 대사관 근무, 번역가·통역가가 되고 싶다고 대답하였으며 나머지 일반인 학생들은 한국어 선생님, 관광가이드, 사업가, 한국회사 취업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고 소수의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한국어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선택한 학생들도 있었다.

2차 조사에서는 아랍권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발음 및 철자, 조사의 쓰임, 어순 부분에서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였는지를 본격적으로 조사했다.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절 듣기(14문항), 철자(20문항), 조사의 쓰임(5문항), 어순(10문항)등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검사 도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능력 시험 1급, 2급 시험 문제와 성균관대학교 말하기 쉬운 한국어 1을 참고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오류분석에 앞서 한국어와 아랍어의 음운과 형태 그리고 통사적 측면에서 특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형태론적인 측면은 한국어의 조사와 아랍어의 격에 국한하며 통사적인 측면은 한국어와 아랍어의 어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아랍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가 각기 모국어의 간섭이나 영향이 오류에 나타나는 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양 언어의 각기 다른 문법 체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류 분석이란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를 수집 분석하고 오류의 원인을 규명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오류 분석을 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학습자가 실제로 갖추고 있는 언어에 대한 능력을 가늠하고, 둘째,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그들이 범하는 문제점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며, 셋째, 수업계획을 준비하고 교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오류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교사 뿐 만 아니라 학습자, 그리고 교재 제작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어를 배우는 아랍인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의 분석을 통해서 학습자의 실제적인 언어 능력을 진단해보고, 한국어 학습에 효율적인 수업 계획과 학습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2장 한국어와 아랍어의 음성학적 특징

언어는 음성 기호이다.⁵⁾ 내용 즉, 의미를 담고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호라고 하는 데, 언어는 음성이라는 형식 속에 의미를 담고 있다. 교통 신호나 여러 가지 몸짓과 같이 언어는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출하고 전달하기 위해 발전시킨 문화 현상이다. 하지만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인식 되고 있는 현대에는 더욱이 외국어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인간이 태어나서 학습도 없이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는 모국어에 비해 제2 외국어 학습은 어렵고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모국어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언어라는 것은 모두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언어이므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각 언어들이 가진 개별성을 생각해 본다면 학습이 보다 용이해질 수가 있겠다.

외국어의 학습은 발음 학습부터 시작된다. 외국어를 배울 때 보다 정확하게 발음을 한다는 것은 외국어로 자신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모국어의 간섭(interference)을 많이 받는 것이 발음인데, 외국어를 올바르게 발음하려면 소리와 소리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어와 아랍어의 자음과 모음을 알아보고 두 언어의 음성적 차이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1절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⁶⁾

5) 홍혜련, “태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05), p. 13.

6) 허웅, 「국어음운학 우리말 소리의 어제·오늘」, (서울: 샘문화사, 1985), p. 139-184.

이현복, 「국제음성문자와 한글음성문자」, (서울: 과학사, 1981), p. 103-105.

남기심·이정민·이홍배, 「언어학개론 개정판」, (서울: 탑출판사, 1986), p.214.

이기문·김진우·이상억, 「국어음운론」, (서울: 학연사, 1987), p.97.

어린 아이가 외국 현지에 거주하면서 그 언어를 배울 때에는 문자와 관계없이 주위 사람들의 발음과 말을 흉내 내면서 체득하게 되지만, 성인이 어떤 외국어를 제대로 배우고자 하면, 주위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흉내 내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그 언어의 문자를 통한 기본 발음을 익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어의 기본 발음도 한국어의 표기 문자인 한글 자모의 발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즉 한글의 자모의 음가를 알고, 모음과 자음이 조합된 음절의 발음을 배우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1443년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은 자음 19자(1)와 ,모음 21자(2)로 모두 40개의 글자가 있는데 이 모음과 자음이 합하여 음절을 이룬다. 한글은 한 글자가 한 음을 나타내는 표음문자인데 한글 창제(1443년) 이전의 표기 수단이었던 중국의 한자를 지금도 겸용하고 있다.

(1) 한글 자음 19자 : ㄱ, ㅋ, ㆁ, ㆅ, ㄷ, ㄸ, ㄹ,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2) 한글 모음 21자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ㆀ, ㆁ, ㆂ, ㆃ, ㆄ,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1. 한국어의 자음

자음은 발음의 방법과 위치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자음 체계를 다음의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조음위치와 조음방식			양순음	전설음	후설음	성문음
장애음	파열음	평 음	ㅂ [b]	ㄷ [d]	ㄱ [g]	
		경 음	ㅃ [p']	ㄸ [t']	ㄲ [k']	
		유기음	ㅍ [p ^h]	ㅌ [t ^h]	ㅋ [k ^h]	
	파찰음	평 음		ㅈ [ʧ]		
		경 음		ㅉ [ʧ']		
		유기음		ㅊ [ʧ ^h]		
	마찰음	평 음		ㅅ [s]		
		경 음		ㅆ [s']		
		유기음				ㅎ [h]
공명음	비 음	ㅁ [m]	ㄴ [n],	ㅇ [ŋ]		
	유 음		ㄹ [l][r]			

[표1] 한국어의 자음 체계⁷⁾

가. 발음방법에 따라⁸⁾

(1) 파열음

/ㄱ, ㄲ, ㅋ/ [g, k', k^h]

/ㄷ, ㄸ, ㅌ/ [d, t', t^h]

/ㅂ, ㅃ, ㅍ/ [b, p', p^h]

한국어의 파열음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며 내는 소리로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ㅂ, ㅃ, ㅍ/, 치(조)음 /ㄷ, ㄸ, ㅌ/, 연구개음 /ㄱ, ㄲ, ㅋ/으로 나누고, 긴장과 기의 유무에 따라 무기연음 /ㅂ, ㄷ, ㄱ/, 유기경음 /ㅍ, ㅌ, ㅋ/, 그리고 무기경음 /ㅃ, ㄸ, ㄲ/으로 나눈다.⁹⁾

한국어 파열음은 긴장성과 [k', t', p'], 기음성 [k^h, t^h, p^h]로 대립하며 유성성

7) 국립국어원, op.cit., p. 475.

8) 본 연구에서는 '/'를 음소기호, '[']를 음성기호로 하기로 한다.

9) 이호영, 「국어음성학」, (서울: 태학사, 1996), p.71.

은 환경에 따라 실현되는 변이음에 불과하다.

<예> 가다, 까치, 칼 /ㄱ, ㄲ, ㅋ/

담, 땀, 탈 /ㄷ, ㄸ, ㅌ/

방, 뺑, 파리 /ㅂ, ㅃ, ㅍ/

(2) 파찰음

/ㅈ, ㅉ, ㅊ/ [t͡ʃ, t͡ɕ, t͡ɕʰ]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로 세 개의 마찰음 /ㅈ, ㅉ, ㅊ/이 있으며, 모두 경구개에서 조음된다.

<예> 잠자리, 짜다, 참나무

(3) 마찰음

/ㅅ, ㅆ/ [s, sʰ], /ㅎ/ [h]

입 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공기를 그 좁은 사이로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로 한국어에는 세 개의 마찰음 /ㅅ, ㅆ, /ㅎ/이 있다. 마찰음은 조음 자리에 따라 치(조) 마찰음 /ㅅ, ㅆ/과 성문마찰음인 /ㅎ/으로 나누고, 조음기관의 긴장도에 따라 연음인 /ㅅ, ㅎ/과 무기경음인 /ㅆ/으로 나눈다.

<예> 스물, 쓰다, 하늘

(4) 비음

/ㄴ, ㅁ, ㅇ/ [n], [m], [ŋ]

입 안의 통로를 막고 날숨을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한국어에는 세 개의 비음 /ㄴ, ㅁ, ㅇ/이 있다. 한국어의 비음은 조음 자리에 따라 양순음 /ㅁ/, 치(조)음 /ㄴ/, 연구개음 /ㅇ/으로 나눈다.

<예> 논, 뭍, 영어

(5) 유음

/ㄹ/ [l][r]

한국어의 유음은 [ㄹ] 하나 밖에 없는데,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

면 탄설음 [r]로 발음되기도 하고,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혀 양 옆으로 흘려 내보내며 [l]내는 소리 설측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두 언어 간에 큰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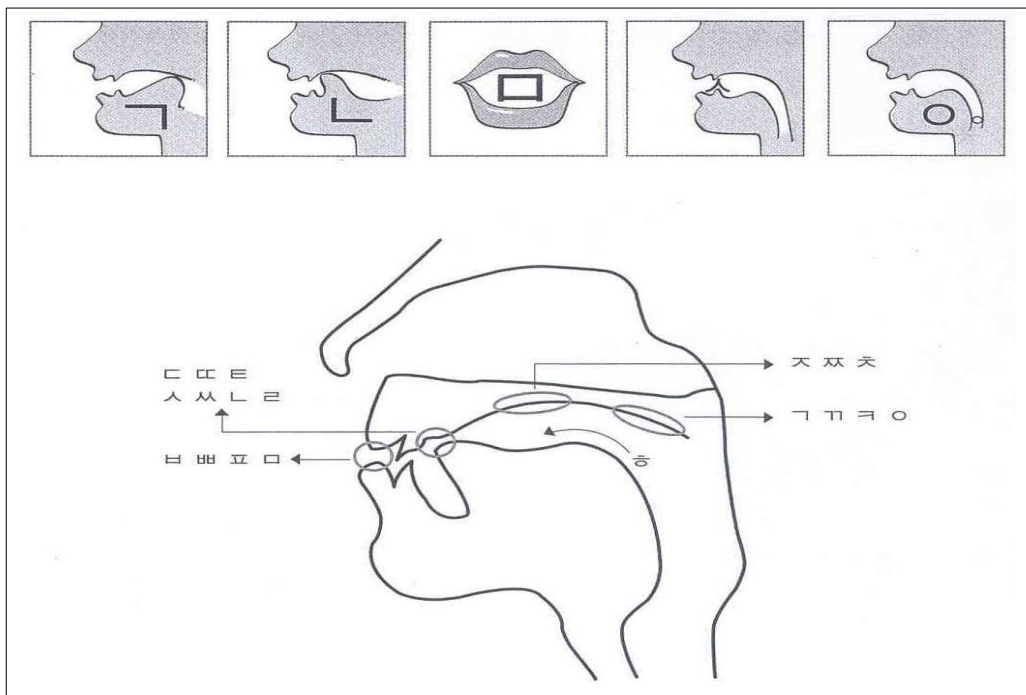
<예> [ɾ] : 오리[ori], 도로[doro]

[l] : 길[gil], 열[yol], 설날[səllal]

(6) 무성음, 유성음

이 외에도 발음할 때에 모음처럼 목청이 떨어 울리는 소리 유성음으로는 /ㄴ, ㄱ, ㅇ, ㄹ/이 있고 발음할 때에 목청이 떨어 울리지 않는 소리 무성음이다. 유성음 ㄴ, ㄱ, ㅇ, ㄹ 네 소리를 제외한 열다섯 소리는 무성음이다. (ㄱ/ ㄷ/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ㅊ) 그러나 이 중에서도 ‘ㄱ/ ㄷ/ ㅂ/ ㅈ’ 은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이 된다.

나. 발음위치에 따라



[그림 1] 한국어 자음의 조음 위치¹⁰⁾

(1) 입술소리

입술소리는 양 입술에서 내는 소리로 /ㅂ, ㅃ, ㅍ, ㅍ/이 있다.

(2) 혀끝소리

혀끝소리는 혀끝과 위 잇몸 사이에서 내는 소리로 /ㄷ, ㄸ, ㅌ/, /ㄴ/, /ㅅ, ㅆ/, /ㄹ/이 있다.

(3) 혃바닥소리

혃바닥소리는 혃바닥과 셤입천장 사이에서 내는 소리로 /ㅈ, ㅉ, ㅊ/이 있다.

(4) 혃뿌리소리

혃뿌리소리는 혃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내는 소리로 /ㄱ, ㄲ, ㅋ/, /ㅇ/이 있다.

(5) 목청소리

목청소리는 목구멍에서 내는 소리로 /ㅎ/이 있다.

2. 한국어의 모음

한국어의 모음은 혃의 최고점의 전후 위치에 따라 전설, 후설 모음으로 구별되고 혃의 높이에 의해 고, 중, 저 모음으로 나뉘며 입술의 모양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으로 분류된다.¹¹⁾

10)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한국어 발음」,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p. 26.

11) 요즘에는 한국어의 모음을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2분법으로 표현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음성학적으로 알아보고자 3분법을 취하였다.

	전 설	중 설	후 설
고모음	[i] 이 [y] 위	[i] 으	[u] 우
중모음	[e] 예 [ø] 외	[ə] 어	[o] 오
저모음	[ɛ] 애	[a] 아	

[표2] 한국어의 모음 체계¹²⁾

가. 전설모음

(1) 전설 고모음 /ㅣ/ [i]

한국어의 /ㅣ/는 입술을 양옆으로 펴고 전설을 경구개에 바짝 접근시켜 조음한다.

<예> 이익, 기자, 비

(2) 전설 중고모음 /ㅔ/ [e]

입술을 옆으로 조금 펴고 전설을 경구개에 바짝 접근시켜 조음한다.

<예> 에워싸다, 그런데, 테다

(3) 전설 중저모음 /ㅙ/ [ɛ]

<예> 애국, 재료, 배

(4) 원순 전설 고모음 /ㅣ/ [y]

<예> 위기, 귀, 쥐, 쉬다

한국어에 있어서 /ㅣ/는 환경에 따라 원순 전설 고모음 [y]로 발음되기도 하고, 이중모음 [wi]로 발음되기도 한다. ¹³⁾

12) 이기문·김진우·이상억, 「국어음운론」, (서울: 학연사, 1984), p. 153.

(5) 원순 전설 중고모음 /ɰ/ [ø]

<예> 외교, 뇌, 괴담

한국어에 있어서 /ɰ/는 환경에 따라 원순 전설 고모음[ø]로 발음되기도 하고, 이중모음 [we]로 발음되기도 한다. 14)

나. 중설모음

(1) 중설 저모음 /ʌ/ [a]

<예> 아래, 아마

(2) 중설 고모음 /ɨ/ [i]

<예> 으깨다, 음식, 그대

(3) 중설 저모음 /ɛ/ [ɐ]

<예> 어머니, 서울

다. 후설모음

(1) 원순 후설 고모음 /ɯ/ [u]

<예> 우유, 무

(2) 원순 후설 중고모음 /ɔ/ [o]

<예> 옥, 고래

라. 이중모음

한국어는 j계 이중모음과 [w]계 이중모음 그리고 [ɰ]계 이중모음으로 나뉜다.

13) 이호영, 「국어음성학」, (서울: 태학사, 1996), p. 109.

14) Ibid., p. 121.

(1) [j]계 이중모음은 / ㅟ, ㅠ, ㅞ, ㅟ, ㅠ, ㅡ /

<예> 야외, 여가, 담요, 유리, 예술, 애기

(2) [w]계 이중모음은 / ㅜ, ㅠ, ㅟ, /ㅜ, ㅠ, ㅟ/

<예> 기와, 부러워, 외국, 위선, 왜

(3) [ɰ]계 이중 모음은 /-ㅜ/이다.

<예> 의자

제2절 아랍어의 자음과 모음¹⁵⁾

오늘날 아랍어는 동·서로는 아라비아 만 연안에서부터 대서양 아프리카 북부 연안까지, 남·북으로는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부터 수단, 소말리아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의 언어이다. 그 사용 인구는 약 삼억 명에 달하며, 전세계 인구의 약 오분의 일에 해당하는 무슬림들의 경전인 꾸란의 언어이기도 하다. 이 아랍어는 문어체 아랍어와 구어체 아랍어로 구분되는데, 문어체 아랍어는 꾸란을 비롯하여 저술활동·신문·방송·각급 학교교육·기타 공식적인 행사에 쓰이며 표준아랍어로 간주되고 있다. 반면에 구어체 아랍어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전해지면서 아랍국가들 간에도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문법체계와 독특한 발음을 갖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아랍어를 중심으로 아랍어 자모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단, 전문용어는 아랍어 원음에 충실하면서 전사를 했고 국내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알맞은 용어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랍어의 독특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 원음을 사용하였다.

15) 박재양, “아랍어의 음운규칙 연구”,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2001), p. 200-206.

김중도, 「알기 쉬운 아랍어 문자 읽고 쓰기」, (서울: 명지대출판부, 2000), p. 5-20.

이규철, “한국어와 아랍어의 음절 대조 연구”, (한글 제 185호, 1984), p. 172-173.

이종택, 「현대표준아랍어」, (서울: 명지대출판부, 1995), p. 6-35.

1. 아랍어의 자음(al-Ṣaw āmit)

표준 아랍어의 자음은 28자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ء/[ʔ], /ب/[b], /ت/[t], /ث/[th], /ج/[j], /ح/[h], /خ/[kh], /د/[d], /ذ/[dh], /ر/[r], /ز/[z],
/س/[s], /ش/[sh], /ص/[ṣ], /ض/[d], /ط/[t], /ظ/[z], /ع/[ʕ], /غ/[gh], /ف/[f], /ق/[q], /ك/[k],
/ل/[l], /م/[m], /ن/[n], /ه/[h], /و/[w], /ي/[y].

아랍학자들은 이들 소리 중 마지막 두 소리 /و/[w], /ي/[y]는 무모음(sukūn)과 모음을 가졌을 때만 자음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 두 소리를 반자음, 반모음이라 했으며 린(līn)소리라고 명했다.¹⁶⁾ 이 두 소리는 꾸란 독경에서 /ن/음운을 만났을 때 콧구멍소리(ghunnah)현상을 가지고 있다.

예) 가) 무모음(sukūn)일 때 : [w] - yawm 오늘
[y] - bayt 집

나) 모음을 가졌을 때 :

[w] - walad 소년, wudd 우정
[y] - yusr 쉬운, ḥayya 영생하라

아랍어 자음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가로막는 폐쇄나 마찰과 같은 장애가 있을 경우 발생하는 소리를 자음이라 한다. 장애가 일어날 때 발음기관인 혀의 근육은 긴장을 한다. 그 긴장은 혀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발생과 관계되는 특정부위에서만 일어난다. 따라서 자음 소리들은 그 형성 발음위치와 방법에 따라 크게 구분되어 진다.

16) Bashār Kamāl, al-ʔAṣwāt al-Ṣarabiyah. (Cairo: Maktabah al-Shabāb, 1990)

발음방법		발음위치	양순	순치	치간	치/치경음	경구개	연구개	목젖	인두	성문
			과 열 음	유성	비연구개음화	b			d		
연구개음화						ɖ					
무성	비연구개음화					t		k	q		ʔ
	연구개음화					ʈ					
과찰음, 유성							j				
마 찰 음	유성	비연구개음화			dh	z		gh		ʃ	
		연구개음화			ʒ						
	무성	비연구개음화		f	th	s	sh	kh		ħ	h
		연구개음화				ʂ					
비음			m			n					
측음						l					
굴림소리						r					
반모음			w				y	(w)			

[표3] 아랍어의 자음 체계 17)

가. 발음방법에 따라(al-Şifah)

아랍어 자음의 발음방법은 혀파에서 흘러나오는 공기가 얼마나 차단되고, 어떻게 차단되느냐에 따라 자음 소리들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아랍어 자음의 기본 조음방법은 상대 조음방법을 가지고 있는 종류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7) 이명원, “국어의 아랍문자 표기에 관한 연구”, (중동문제연구소 연구논총 No. 7, 1988) p.192와

كمال محمد بشر ، علم اللغة العام - الأصوات ، دار المعارف ، القاهرة ، ١٣٦١ ، ص ٩٧٣
 أحمد مختار عمر ، دراسة الصوائت اللغوى ، علم الكتب ، القاهرة ، ١٩٦٧ ، ص ٢٧٤ 참조

(1)상대 조음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

① 파열음(al-Shiddah/al-ʔInfijār)

파열음은 공기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가 갑자기 열어 공기가 빠져 나오면서 폭발음이 발생한다. 발음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ʔ/[ʔ], /ق/[q], /ك/[k], /ت/[t], /ط/[t], /د/[d], /ث/[th], /ض/[d], /ب/[b] 즉, 성문에서 두 입술까지 소리 중 8소리만 포함한다.

② 마찰음(al-Rikhawah/al-Ihtikāk)

공기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여러 발음위치에서 다양한 단계로 통로를 좁혀 공기가 나올 때 마찰음이 발생한다. 파열음과 고전아랍어의 /ج/[j]를 빼 나머지 소리들을 일컫는다. /ج/[j]소리는 파열음과 마찰음이 동시에 일어난다 하여 파찰음이라 한다.

③ 유성음(al-Jahr)과 무성음(al-Hams)

이 두 소리의 차이는 발음 시 성대의 진동이 발생유무에 따라 나누어진다. 성대의 진동이 발생하면 유성음이라 하고 진동이 없을 시에는 무성음이라 한다. 고대 아랍학자들과 현대 아랍 학자들 간에 유·무성 자음 소리 구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대학자는 유성음 자음 소리를 / ʔ/[ʔ], /ع/[ʕ], /ق/[q], /غ/[gh], /ي/[y], /ج/[j], /ر/[r], /ز/[z], /ن/[n], /و/[w], /د/[d], /ض/[d], /ط/[t], /ذ/[dh], /ظ/[z], /و/[w], /م/[m], /ب/[b]로 정한 반면 현대 아랍학자들은 고대학자들이 유성음으로 여겼던 /ط/[t], /ق/[q]를 무성음으로 여겼고, / ʔ/[ʔ]소리를 현대 아랍학자들 간에 유성음, 또는 유성음, 무성음도 아니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현대 학자들은 무성음을 / ʔ/[h], /ت/[h], /خ/[kh], /ك/[k], /ش/[sh], /س/[s], /ص/[s], /ت/[t], /ث/[th], /ف/[f], /ط/[t], /ق/[q]로 정했다.¹⁸⁾

④ 혀 올림소리(al-Tafkhīm)와 안 올림소리(al-Tarqīq)

발음 시 혀의 뿌리부분을 입천장으로 향해 올리면서 소리를 내는 것을 혀 올림소리라 하며 자음들 중 /ق/[q], /خ/[kh], /غ/[gh], /ص/[s], /ض/[d], /ط/[t], /ظ/[z] 소리들을 말한다. 뒤의 /ص/[s], /ض/[d], /ط/[t], /ظ/[z] 네 소리는 가장 혀의 뿌리를

18) al-Barakāwī, ʔAbdu al- Fatāh, Muqaddamah fi ʔAṣwāti al-Lughah al-ʔAeabiyah, (Cairo: Muʔassasat al-Risālah, 1984)

입천장으로 높이는 소리이다. 고대아랍학자들은 이 네 소리를 발음 시 혀의 모양이 접시모양처럼 설중이 오목하게 되는 것을 비유하여 접시 소리(al-ʔItbāq)라 했다. 혀 올림소리들은 모음 ‘아’ (fathah) → ‘우’(dammah) → ‘으’(sukūn) 순으로 결합될 때 높은 소리가 나온다. ’이’(kasrah) 모음과 만나면 낮은 소리가 나온다. 특히 앞의 /ق/[q], /ك/[kh], /غ/[gh] 세 소리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혀 안 올림소리는 혀의 뿌리부분을 입천장으로 올리지 않고 내는 소리를 말한다. 혀 올림소리를 제외한 나머지 소리 모두를 간주한다. 이 들 소리 중 예외의 조항에 들어가는 세 가지 소리가 있다.

○ 알리프 알만다(alif al-Madd) : 그 앞의 소리가 혀 올림소리가 오면 같이 올림소리가 된다.

○ [l] : 하나님 이름 (Allah) 앞에 ‘아’ 혹은 ‘우’ 모음이 올 때 [l]소리는 혀 올림소리가 된다.

○ [r] : ‘아, 우, 으’ 모음을 갖고 그 앞에 자음의 모음이 ‘아, 우’ 모음 일 때 혀 올림소리가 된다.

(2) 상대조음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① 강음(al-Qalqalah) : 발음 시 강하게 한다. 다섯 소리 /ق/[q], /ك/[j], /د/[d], /ط/[t], /ب/[b] 이다. 이 들 소리가 무모음(sukūn)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된다. 가장 강한소리는 휴지(waqf) 상태에서 이 다섯 소리가 동일한 두 개 자음(shaddah)을 가지고 있을 때이다.

② 콧구멍 소리(al-Ghunnah) : 비강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이다. /ن/[n], /م/[m] 두 소리를 말한다.

③ 설측음(al-ʔInhirāf) : 혀의 양쪽이나 한 쪽에서 공기가 나올 때 나는 소리이다. /ج/[j] 소리가 해당된다.

④ 진동음 (al-Takrīr) : 전설이 치경 부분을 두 번 이상 친다. /ر/[r]소리를 말한다.

나. 발음위치에 따라 (*al-Makhraj*)

(1) 두 입술소리 (*ʔaṣwāt shafawiyah*) : 두 입술로 공기의 흐름을 막으면서 내는 소리이다.

/ب/[b], /م/[m], /و/[w]

(2) 이-입술소리 (*ʔaṣwāt ʔasnāniyah shafawiyah*) : 아랫입술을 윗니에 갖다 대면서 내는 소리이다.

/ف/[f]

(3) 사이 잇소리 (*ʔaṣwāt bayna ʔasnāniyah*) : 혀 앞부분을 윗니 아랫니 사이에 갖다 대면서 내는 소리이다.

/ذ/[dh], /ث/[th], /ظ/[z]

(4) 잇소리 (*ʔaṣwāt lithawiyah ʔasnāniyah*) : 혀끝을 윗니 안쪽에 갖다 대면서 내는 소리이다.

/ض/[d], /د/[d], /ط/[t], /ت/[t], /ج/[l], /ن/[n]

(5) 잇몸소리 (*ʔaṣwāt lithawiyah*) : 혀끝을 잇몸에 갖다 대면서 내는 소리이다.

/س/[s], /ص/[s], /ذ/[z], /ر/[r]

(6) 센입천장 잇몸소리 (*ʔaṣwāt lithawiyah ḥanakiyah*) : 혀 몸 가운데 부분을 센 입천장 부위에 갖다 대면서 내는 소리이다.

/ش/[sh], /ج/[j]

(7) 센입천장 중간소리 (*ʔaṣwāt wasta ḥanakiyah*) : 혀 몸 가운데 부분을 센 입천장으로 향하는 중간 위치에서 내는 소리이다.

/ي/[y]

(8) 여린입천장소리 (ʔaṣwāt ḥanakiyah liyiniyah) :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 부위에 갖다 대면서 내는 소리이다.

/ġ/[gh], /ġ/[kh], /ك/[k], /و/[w]

(9) 목젓 소리 (ʔaṣwāt lahawiyah) : 혀뿌리를 목젓에 갖다 대면서 내는 소리이다.

/ق/[q]

(10) 인두음 소리 (ʔaṣwāt ḥalqiyah) : 인두 벽을 좁히면서 내는 소리이다.

/ح/[ħ], /ع/[ʕ]

(11) 성문음 소리 (ʔaṣwāt ḥanjariyah) : 두 성대사이의 공간을 이용해 내는 소리이다.

/ء/[ʔ], /ه/[h]

이와 같이 조음 위치를 11지점으로 나누는 분류는 현대음성학자들의 분류법이다. 고·현대 아랍학자들의 조음 위치분류법에서 차이는 조음위치의 세분화와 명칭에 있다. 유명한 고대 아랍학자인 씨바와이히와 이븐 진니는 조음 위치를 16지점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했다. 예를 들면 잇소리의 여섯 소리를 네 조음점으로 나누었다. - /ض/[d] - /ج/[j] - /ن/[n] - /ط/[t] - /د/[d] - /ت/[t]. 또한 여린입천장소리인 /ك/[k] 음과 잇몸소리인 /ر/[r]음을 각각 독립된 조음위치에 놓았다. 고대학자들은 /و/[w] 음을 두 입술소리에 놓았다. 이 /و/[w] 소리의 조음위치는 현대 학자들 간에도 두 입술소리와 여린입천장소리로 혼동해 사용하고 있다. 19)

19) 박재양, “꾸란 정음법 연구”, (한국이슬람학회 No11, 2001), p. 167.

2. 아랍어의 모음(al-Ṣawāʾit)

아랍어의 모음은 공기가 입안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자유롭게 흐를 때 나는 소리이며 유성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음소리를 낼 때 관계되는 발성기관에 일어나는 긴장도는 어느 특정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퍼져있다. 아랍어 모음의 경우에는 자음과는 달리 발음위치와 발음방법에 의한 분류로는 특징적인 구별이 적어 입을 벌린 정도와 입술 모양, 혀의 위치로 구분하고자 한다.

아랍어의 모음은 단모음 [a], [u], [i]와 장모음 [ā], [ū], [ī]가 있다. 장모음들을 아랍 언어학자들은 만다 자음(ḥurūf al-Madd)들이라고 명했다.

혀의 위치 입술모양	전설	중설	후설
	평순		원순
개구도			
폐 (고)	i		u
개 (저)		a	

[표4] 아랍어의 모음 체계²⁰⁾

제3절 발음 및 철자 오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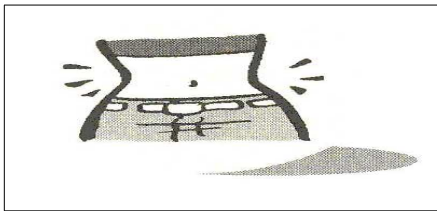
발음 및 철자의 오류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 교재를 이용한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음절 듣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인 교원의 음성으로 하여 현재 이집트 아인샤스 대학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1학년과 2학년으로 총 4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년 기말고사 기간에 듣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1번 문항에서는 그림을 보면서 한국어 자·모음을 구분하는 문제이고, 2번 문항은 모음 그리고 세 번

20) 이명원, op.cit., p.192.

째 문항에서는 한국어 자음에 관한 질문을 해 보았다.

[첫 번째 문항 - 자·모음 듣기]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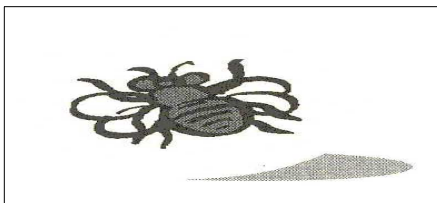
문제 1. 그림을 보면서 듣고 알맞은 곳에 √ 하세요. (모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허리 <input type="checkbox"/> 호리 <input type="checkbox"/> 후리 <input type="checkbox"/> 허니
---	---

정답: 44명

오답: 0명(오답률: 0%)

문제 2. 그림을 보면서 듣고 알맞은 곳에 √ 하세요. (자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파리 <input type="checkbox"/> 빠리 <input type="checkbox"/> 바리 <input type="checkbox"/> 버리
---	---

정답: 41명

오답: 3명 (오답률: 7%)

오답 유형: 빠리 (2명), 바리(1명)

21) 성균어학원 한국어교재 편찬위원회, 「말하기 쉬운 한국어 1」,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p. 14-19.

문제 3. 그림을 보면서 듣고 알맞은 곳에 √ 하세요. (자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리 <input type="checkbox"/> 쏘리 <input type="checkbox"/> 씨리 <input type="checkbox"/> 서리
---	---

정답: 38명

오답: 6명 (오답률: 14%)

오답 유형: 쏘리 (2명), 씨리(1명), 서리(3명)

문제 4. 그림을 보면서 듣고 알맞은 곳에 √ 하세요. (자음)


	<input type="checkbox"/> 초사 <input type="checkbox"/> 쭈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사 <input type="checkbox"/> 추사
---	---

정답: 35명

오답: 9명 (오답률: 20%)

오답 유형: 초사 (3명), 쭈사(1명), 추사(5명)


문제 5. 그림을 보면서 듣고 알맞은 곳에 √ 하세요. (자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 <input type="checkbox"/> 곰 <input type="checkbox"/> 곤 <input type="checkbox"/> 골
---	---

정답: 44명

오답: 0명(오답률: 0%)

문제 6. 그림을 보면서 듣고 알맞은 곳에 √ 하세요. (자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증 <input type="checkbox"/> 존 <input type="checkbox"/> 줌 <input type="checkbox"/> 즐
---	---

정답: 44명

오답: 0명(오답률: 0%)

문제 7. 그림을 보면서 듣고 알맞은 곳에 √ 하세요. (자음)


	<input type="checkbox"/> 별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병 <input type="checkbox"/> 변
---	---

정답: 43명

오답: 1명 (오답률: 2%)

오답 유형: 범(1명)

문제 8. 그림을 보면서 듣고 알맞은 곳에 √ 하세요. (자음)


	<input type="checkbox"/> 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천 <input type="checkbox"/> 품 <input type="checkbox"/> 들
---	---

정답: 41명

오답: 3명 (오답률: 7%)

오답 유형: 동 (2명), 돔(1명)

문제 9. 그림을 보면서 듣고 알맞은 곳에 √ 하세요. (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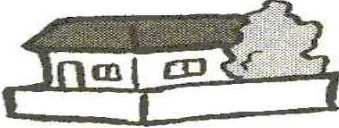
	<input type="checkbox"/> 섬물 <input type="checkbox"/> 성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물 <input type="checkbox"/> 손물
---	---

정답: 42명

오답: 2명 (오답률: 5%)

오답 유형: 성물 (1명), 손물(1명)

문제 10. 그림을 보면서 듣고 알맞은 곳에 √ 하세요. (자음)

	<input type="checkbox"/> 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집 <input type="checkbox"/> 즈 <input type="checkbox"/> 진
---	---

정답: 44명

오답: 0명(오답률: 0%)

문제 11. 그림을 보면서 듣고 알맞은 곳에 √ 하세요. (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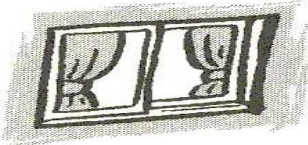
	<input type="checkbox"/> 다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달 <input type="checkbox"/> 탈 <input type="checkbox"/> 타르
---	---

정답: 38명

오답: 6명 (오답률: 14%)

오답 유형: 탈 (6명)

문제 12. 그림을 보면서 듣고 알맞은 곳에 √ 하세요. (자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창문 <input type="checkbox"/> 장문 <input type="checkbox"/> 창음 <input type="checkbox"/> 장물
---	---

정답: 40명

오답: 4명 (오답률: 9%)

오답 유형: 장문(4명)


문제 13. 그림을 보면서 듣고 알맞은 곳에 √ 하세요. (자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름 <input type="checkbox"/> 구릉 <input type="checkbox"/> 구늬 <input type="checkbox"/> 구른
---	---

정답: 44명

오답: 0명(오답률: 0%)

문제 14. 그림을 보면서 듣고 알맞은 곳에 √ 하세요. (자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자동자 <input type="checkbox"/> 차동자 <input type="checkbox"/> 차동차
---	---

정답: 40명

오답: 4명 (오답률: 9%)

오답 유형: 차동자(4명)

위 문항에서는 그림을 통해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오류 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총 14문항을 작성하였다. 자음에서는 비음과 유음의 차이를 알아보는 문항과 파열음, 파찰음, 파열음에서 평음-격음-경음의 차이를 알아보는 문항을 조사하였고 모음에서는 전설고모음[ㅣ]와 중설고모음[-], 중설저모음[+], 원순 후설 중고모음[ㅓ]의 차이를 알아보는 문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의 복잡한 모음체계와는 달리 단순한 모음 체계를 가진 아랍어는 오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사한 2문항에서는 오류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어 자음에서 비음과 유음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6문항에서는 3문항은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고 나머지 3문항에서는 2%의 오류가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어 자음의 평음-격음-경음을 알아보는 6문항에서는 12%의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아랍 학생들에게서만 특별히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며,²²⁾ 평음-격음-경음 부분의 음운지도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극복해야 할 오류현상인 것으로 보여진다.

[두번째 문항 - 모음 듣기]23)

※ 듣고 알맞은 곳에 √ 하세요. (모음)

- ㉮ 아이 오이 야기 어머니
- ㉮ 우유 우산 오이 우표
- ㉮ 여구 야구 요구 유구
- ㉮ 요우 유우 여우 여유
- ㉮ 오른 으른 우른 어른
- ㉮ 왜 위 애 에

22) 본 필자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3년 동안 한국어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오류는 다른 국가의 학생에게서도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발음으로 여겨지고 있다.

23) 픽셀 퇴르귀쉬, “터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p. 144-147.

들려준 소리	정답	오답(오답률)	오답 유형
오이	44명	0명(0%)	-
우산	44명	0명(0%)	-
요구	34명	10명(23%)	여구(6명), 유구(4명)
여유	42명	2명(5%)	요우(2명)
어른	36명	8명(18%)	오른(8명)
애	25명	19명(43%)	에(19명)

[표 5] 음절에서 모음 오답률과 오답 유형

위의 오류를 종합하여 보면 한국어의 모음과는 달리 단순한 모음 체계를 갖춘 아랍어의 간섭에 의해서 이중 모음에서 오류를 범하는 학습자들이 많이 나왔다. 이 역시 혀의 최고점의 전후 위치, 높이, 입술 모양에 의해 구별되어 지는 한국어의 모음과 입을 벌린 정도, 입술 모양, 혀의 위치로 구별되어지는 아랍어 모음의 차이 점을 설명하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하여 연습하면서 오류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 듣고 알맞은 곳에 √ 하세요. (자·모음)

- | | | |
|---|---|-----------------------------|
| 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거기 | <input type="checkbox"/> 고기 | <input type="checkbox"/> 그기 |
| 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기 | <input type="checkbox"/> 야기 | <input type="checkbox"/> 얘기 |
| ㄷ. <input type="checkbox"/> 너무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나무 | <input type="checkbox"/> 노무 |
| ㄹ.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히 | <input type="checkbox"/> 터키 | <input type="checkbox"/> 타키 |
| ㅁ. <input type="checkbox"/> 놓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낱다 | <input type="checkbox"/> 녕다 |
| ㅂ. <input checked="" type="checkbox"/> 끄다 | <input type="checkbox"/> 크다 | |
| ㅅ. <input type="checkbox"/> 살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쌀 | |
| ㅇ. <input type="checkbox"/> 바르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빠르다 | |
| 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다 | <input type="checkbox"/> 따다 | |

- 츠. 발 팔
 커. 불 풀 뿔
 트. 달 탈 딸
 표. 자다 차다 짜다
 흥. 강 감 간

들려준 소리	정답	오답(오답률)	오답 유형
거기	41명	3명(7%)	고기(3명)
여기	43명	1명(2%)	야기(1명)
나무	44명	0명(0%)	-
특히	44명	0명(0%)	-
낳다	44명	0명(0%)	-
끄다	40명	4명(9%)	크다(4명)
쌀	43명	1명(2%)	살(1명)
빠르다	36명	8명(18%)	바르다(8명)
타다	42명	2명(5%)	따다(2명)
발	29명	15명(34%)	팔(15명)
풀	39명	5명(11%)	뿔(5명)
딸	40명	4명(9%)	달(3명), 탈(1명)
자다	25명	19명(43%)	차다(18명), 짜다(1명)
감	44명	0명(0%)	-

[표 6] 음절에서 자음 오답률과 오답 유형

위 문항에서의 의도는, 아랍 학생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한국어 자음들을 알아보는 것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아랍 학생들은 아랍어에 존재하지 않는 평음-격음-경음화 사이에서의 발음을 어려워하였다. 경음을 평음으로 발음 또는 표기하는 경우로 쌀(→살), 빠르다(→바르다), 딸(→달)이 있었고, 평음을 경음 및 격음으로 표

기하는 경우로 발(→팔)이 있었다. 그리고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에게 시각적인 자료 즉, 그림을 통한 발음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오류현상이 적게 나타나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바람직한 발음 교육을 위해 교사는 한국어 음성학과 언어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습득과 발음 교육의 청취-식별-생성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또한 학습자 모국어와 한국어의 음성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성인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모국어 발음에 용이하도록 굳어져 있는 조음 기관을 목표어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꾸준히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제3장 한국어 격조사와 아랍어 격의 특징

일반적으로 형태론에서 형태소(形態素, morpheme)는 의미를 가지는 언어단위 중 가장 작은 언어단위로서 상보적 분포를 가지는 이형태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의 ‘-을/를’, ‘-이/가’와 같은 격조사는 동일형태소의 이형태(異形態, allomorph)이다. 또 아랍어는 격 표지가 확실한 형태로 나타나는 언어로서 격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모음의 변화로 주격과 목적격, 속격의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한국어의 격조사와 아랍어 격을 중심으로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고 아랍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격조사 사용 시 발생하는 오류와 그 원인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1절 한국어 격조사²⁴⁾

한국어는 첨가어에 속하는 언어로 어근에 조사나 어미가 결합하여 의미를 표현하거나 단어를 형성하게 된다. 다른 면으로 보자면 한국어에서는 조사와 어미가 매우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어+목적어+서술어’ 어순을 나타내는 언어는 후치사가 발달되어 있다. 한국어에는 후치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있다.

첨가어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가. 한국어 조사

조사는 일반적으로 명사나 명사 구실을 하는 말이나 문장 뒤에 붙는다.

24)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탐출판사, 1998), p. 96-112.

임호빈 외 공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p. 101-131.

국립국어원, op.cit., p. 399-443.

전통문법에서는 조사를 크게 격조사와 보조사로 구분한다. 격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어서 격을 결정하여서 곧 체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한다. 한국어의 격조사는 주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 부사격, 호격의 6격이 있다.

종 류		형 태
격 조 사	주격조사	-이/가, -께서, -에서
	목적격조사	-을/를
	보격조사	-이/가
	관형격조사	-의
	부사격조사	-에, -에게, -한테, -께, -에서, -에게서, -한테서, -로
	호격조사	-아/야/(이)여
접속조사		와/과, 하고, 예(다), (이)며, (이)랑
보조사		-은/는, -도, -만, -뿐, -까지, -조차, -부터, -마다, -(이)야, -(이)나, -(이)나마

[표7] 한국어의 조사²⁵⁾

(1) 주격조사

한 문장의 주어임을 표시해 주는 조사이며, 선행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 받침이 없으면 ‘가’가 쓰인다. 또한 주어 높여 말할 때는 ‘-께서’가 쓰인다. 이때, 동사 어간에는 존칭 접미사 ‘(으)시’가 호응되어 쓰여야 한다. 그리고 단체나 기관이 문장의 주어일 때에는 ‘-에서’가 쓰인다.

<예>

1. 눈이 옵니다.
2. 아버님께서 지금 말씀 중이십니다.

25) 임호빈 외 공저, op.cit., p. 101.

3. 이번 경기는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했다.

(2) 목적격 조사

목적격 조사는 문장에서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조사로 ‘-을/를’이 있다. 선행 명사의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을’, 받침이 없으면 ‘를’이 쓰인다. 또한 어떤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가리켜 주는 격조사이다. 그리고 다른 조사나 어미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예>

1. 나는 아침에 **신문**을 읽습니다.
2. 몇 시쯤에 **집**에를 가세요?

(3) 보격조사

한국어에는 선행하는 명사가 보어임을 표시하는 조사로서, 형태는 주격조사와 같으나 의미, 기능에 의해 구별된다. 선행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 받침이 없으면 ‘가’가 쓰인다.

<예>

1. 나는 **아이**가 아닙니다.

(4) 관형격조사

관형격 조사인 ‘-의’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서 두 명사를 묶어, 보다 큰 명사구를 이룬다. 흔히 속격 또는 소유격조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의’는 문장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지만 생략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대명사 ‘저, 나, 너’에 관형격조사 ‘-의’가 붙으면, 축약되어 각각 ‘제, 내, 네’로 쓰이기도 한다.

<예>

1. 그 **분(의)** 직업이 뭐예요?
2. **제(저의)**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5) 부사격조사

문장에서 선행하는 체언이 부사어임을 표시하는 조사이다. 이것은 앞에 있는

명사와 서술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지니는데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처소격 - 도착점

<예>

1. 나는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의 ‘-에’는 처소(도착점)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부류의 조사에는 ‘-에’, ‘-에게’, ‘-한테’, ‘-께’, ‘-더러’ 등이 있다. 이것을 흔히 여격조사라 한다.

② 처소격 - 출발점

<예>

1.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한국어의 ‘-에서’는 처소(출발점)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가 붙은 ‘-에게서’, ‘-한테서’와 ‘-로부터’가 여기에 속한다.

③ 처소격 - 지향점

<예>

1.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의 ‘-로’는 처소(지향점)를 의미하는 것인데 ‘-(으)로’와 그것이 붙은 ‘-에게로’, ‘-한테로’ 및 ‘-에’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④ 도구격

<예>

1. 한국에 **비행기로** 왔어요.
2.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3. **독서로써** 교양을 쌓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로서’는 자격이나 신분, 지위를 나타내는 조사로, 때로는 ‘-로’만 쓰일 수도 있다. 그리고 “독서로써”는 명사나 동작동사의 명사형에 붙어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⑤ 변성격

<예>

1. 물이 얼어서 **얼음으로** 변했어요.

“얼음으로”의 ‘-으로’는 변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

⑥ 인용격

<예>

1. ‘이리 오너라’라고 아버님이 말씀하신다.
2. 아버지께서 이리 오라고 하셨다.

예문1의 ‘-라고’는 직접 인용의 조사이고, 예문 2의 ‘-고’는 간접 인용의 조사이다.

(6) 호격 조사

어떤 인물이나 대상을 부를 때 쓰는 조사이다. 선행하는 체언으로 하여금 호칭어임을 표시하는 조사로서 ‘-야/-아’가 대표적으로 쓰인다.

<예>

1. 영철야, 너 어디 가니?

(7) 접속조사

문장 내에서 두 단어를 대등하게 이어주는 기능을 한다.

① 선행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와. -랑’, 있으면 ‘-과, -이랑’이 쓰인다. 그리고 ‘-하고’와 ‘-(이)랑’과 바꿔 쓸 수 있다.

<예>

1. 이 방에 의자와 책상이 많아요.

“의자와”는 비교의 대상이 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부류에는 ‘-처럼’, ‘-만큼’, ‘-보다’ 등이 있다.

② 두 개의 명사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와 같이 쓰이면, 두 명사와 함께하는 공동성이나 비교의 뜻을 나타낸다. 즉 뒤에 오는 서술의 내용에 따라 선택되기도 한다.

<예>

1. 난 동창들과 어울려 모교를 찾아갔습니다.

“동창들과”의 ‘-과/와’는 동반의 뜻을 표시하는데 접속 조사 ‘-하고’, ‘-(이)랑’도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다.

- ③ 조사 ‘-에’에 ‘-다가’가 붙어서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데, 선행

명사에 어떤 것을 첨가 또는 부가하는 의미가 있다. 때로는 ‘가’가 생략되어 ‘-에다’, ‘-다가’가 생략되어 ‘-에’로 쓰이기도 한다.

<예>

1. **밥에 떡에** 아주 많이 먹었어요.

④ 둘 이상의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며 나열할 때 쓴다. 선행명사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며’, 없으면 ‘-며’가 붙는다.

<예>

1. 아이**며** 어른**이며** 할 것 없이 다 바쁘다.

(8) 보조사²⁶⁾

격조사는 명사나 명사 구실을 하는 말이 문장에서의 기능을 나타내는 데 반하여, 보조사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표시하거나 앞말에 의미를 덧붙일 때 사용되는 조사를 말한다. 한국어 보조사에는, ‘-은/는, -도, -만, -뿐, -까지, -마저, -조차, -부터, -마다, -(이)야, -(이)나’ 등이 있다.

① 대조: ‘-은/는’

<예>

1. 나는 간다.

2. 일본어는 할 줄 알아요.

예문 1은 ‘다른 사람은 안 간다’와 대조를, 예문 2는 ‘다른 외국어는 못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② 주제: ‘-은/는’

<예>

1. 그 사람은 아들이 의사예요.

2. 저는 미국에서 온 마이클입니다.

3. 고래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예문 1, 2, 3에서 “그 사람은, 저는, 고래는”에 붙은 ‘-은/는’은 모두 ‘~로 말할 것 같으면’, ‘~에 대해서 말하자면’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은/는’이 문장 맨 앞에 나오는 성분 뒤에 붙어 주제를 표시할 때에는 보통 그 명사가 말하는 사람이나

26) 국립국어원, op.cit., p. 433-439.

듣는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 사물이거나 어떤 대상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경우이다. 예문 1, 2의 “그 사람, 저”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예문 3의 “고래”는 총칭적인 지시대상이다.

③ 배타나 한정: ‘-만, 밖에, 뿐’

보조사 ‘-만, 밖에, 뿐’은 모두 ‘오직’의 의미, 다시 말해 앞말이 가리키는 대상 외에 다른 것을 제외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를 ‘배타적인 의미’라고 한다. 즉 배타적 의미는 그 앞말을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한정함을 나타낸다.

<예>

1. 나는 **영미만** 좋아한다.
2. 나는 **영미밖에**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3.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영미뿐**이다.

위의 세 문장은 모두 뜻이 같다. 그러나 ‘-밖에, 뿐’은 ‘만’과 용법상의 차이가 있다. 배타적 의미로서의 ‘밖에’는 부정적인 맥락에 쓰여 예문 2와 같이 ‘~밖에 없다’와 같은 구성으로만 쓰인다. 한편 ‘뿐’은 앞말이 무엇이든 그 뒤에는 ‘이다’나 ‘아니다’가 와야 하며, 그 외의 다른 어떠한 서술어와도 결합하지 못한다. 그런데 서술어로 ‘아니다’가 올 때에는 ‘뿐’과 ‘만’이 함께 쓰인 ‘~뿐만 아니다’ 구성으로 흔히 쓰이고 ‘뿐’과 ‘만’ 중에서 하나만 쓸 때에는 주로 ‘만’이 쓰인다.

④ 포함이나 더함: ‘-도, 조차, 마저, 까지’

보조사 ‘-도, 조차, 마저, 까지’ 등은 ‘더 첨가하여, 더 나아가서’의 포함이나 더함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1. 민수도 나를 떠났다.
2. 민수조차 나를 떠났다.
3. 민수마저 나를 떠났다.
4. 민수까지 나를 떠났다.

각 예문들은 조금씩 그 의미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민수’아닌 다른 사람도 ‘나를 떠났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도’와 ‘까지’는 긍정과 부정 두 경우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조차’와 ‘마저’는 주로 부정적인 경우에만 사용한다.

⑤ 선택: ‘-(이)나, (이)든지, (이)나마, (이)라도’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보조사는 ‘-(이)나, (이)든지, (이)나마, (이)라도’가 있다.

<예>

1. 맥주든지 소주든지 아무거나 마시자.
2. 소주나 마시자.
3.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습니다.
4. 이거라도 먹을래?

‘(이)든지’는 여럿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하고, ‘(이)나’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판단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이)나마’와 ‘(이)라도’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할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용한다. 이때 “이”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나타난다.

제2절 아랍어의 격

아랍어의 격에 대한 연구는 아랍 언어학의 여러 주제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아랍어는 격 표지가 확실한 형태로 나타나는 격 언어이다.²⁷⁾ 아랍어의 격 형태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모음의 변화로 주격, 목적격, 속격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주격은 주격표지로서 모음 [un](비한정), [u]를 어말에 부가하고, 속격은 모음 [in](비한정), [i]를 어말에 부가하며, 목적격은 목적격표지로서 어말에 모음 [an](비한정), [a]를 부가한다. 이와 같이 형태적 격 표지 방법을 갖고 있는 아랍어는 통사적으로 주어와 술어는 주격을, 목적어와 부사어는 목적격을 취한다. 또 연결형의 제2 요소와 전치사의 목적격은 속격을 취한다.²⁸⁾

27) 김종도, 「알기 쉬운 아랍어 기초 문법」, (서울: 명지출판사, 2000), p. 29-35.

사회만, “아랍어의 격”, (세계 주요 9개 언어 비교 포럼 발표자료, 전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04)

송경안·이기갑 외, 「언어유희론 2」, (서울: 월인, 2008), p. 134-162.

이종택, op.cit., p. 36-50.

28) 격 작용소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에는 아랍어학의 모든 분야의 거의 시발점으로 되어 있는 시바와이흐의 ‘알-키탱’이 있으며, 압드 알-까히르 알-주르자니의 ‘백 가지 격 작용소’, 자마크샤리의 ‘세밀’, 이브

1. 격 실현 방법

가. 주격(*raf'un*)

kitābun	-	al-kitābu	(비 한정-한정)
a book	-	the book	

나. 목적격(*našb*)

kitāban	-	al-kitāba	(비 한정-한정)
---------	---	-----------	-----------

다. 속격(*jarr*)

kitābin	-	al-kitābi	(비 한정-한정)
---------	---	-----------	-----------

어말에 나타나는 격모음 표지는 현대아랍어에서는 무표인 경우가 많고 반드시 주격, 속격, 목적격의 격 표지가 필요할 때만 표지된다. 예를 들면 아래의 (a)는 (b)와 같이 쓸 수 있다.

- <예> qaraʔa Muḥammadun ʔal-kitāba. (a)
read Muhammad - NOM def-book-ACC
→ qaraʔa Muḥammad(un) ʔal-kitāb(a). (b)
'무함마드가 책을 읽는다.'

그리고 아랍어의 격을 논의할 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명사, 형용사, 부사의 구분과 격 표시 문제이다. 아랍어의 명사는 성, 수, 격에 따라 변화하는데 형용사 역시 명사와 똑같은 형태변화를 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명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명사로 분류된다.²⁹⁾

알- 안바리의 '아랍어의 비밀' 알-파키히의 '문법의 경계'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주르자니의 '백 개의 격 작용소'는 격 작용소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한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29) 송경안·이기갑 외, op.cit., p. 153.

2. 격의 종류

아랍어에는 주격, 목적격, 속격의 삼 격이 있다. 그러나 색채와 신체장애, 감정 상태 등을 나타내는 명사들은 삼 격으로 격 변화하지 않고 쌍격만으로 격 변화한다.

가. 주격

za'lānu(화난)	-	?az-za'lānu	(비 한정-한정)
abyaḍu(하얀)	-	?al-?abyaḍu	(비 한정-한정)
jaw'ānu(배고픈)	-	?al-jaw'ānu	(비 한정-한정)

나. 목적격

za'lāna(화난)	-	?az-za'lāna	(비 한정-한정)
abyaḍa(하얀)	-	?al-?abyaḍa	(비 한정-한정)
jaw'āna(배고픈)	-	?al-jaw'āna	(비 한정-한정)

다. 속격

za'lāna(화난)	-	?az-za'lāni	(비 한정-한정)
abyaḍa(하얀)	-	?al-?abyaḍi	(비 한정-한정)
jaw'āna(배고픈)	-	?al-jaw'āni	(비 한정-한정)

위에서 보듯이 쌍격 명사는 한정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삼 격 변화하지만, 비한정 상태에서는 어말 모음이 'n'으로 발음되는 탄원(tanwīn)이 없으며 목적격과 속격이 둘 다 대격 표지 / ـ /, [a](fatha)로 표지된다.

3. 격의 기능

가. 주격

- (1) 동사문의 주어(fa'ilun)에 사용된다.

waşalat ʔal-jarīdatu ʔal-yawma şabāhan.
arrived-she def-newspaper-NOM def-day morning -ACC
'신문이 오늘 아침에 도착했다.'

- (2) 명사문의 주어(mubtada'un)가 된다.

ʔal-waladu ʔawilun.
def-boy-NOM tall-NOM
'그 소년은 키가 크다.'

(3) 동사가 나타나지 않은 명사문의 술어(khabarun)가 된다. 위 예문 ʔawilun 이 술어이다.

- (4) 유도사 ʔinna, ʔanna로 시작되는 명사문의 술어가 된다.

ʔinna rabbakum raḥīmun.
Verily Lord-your merciful-NOM
'실로 그대의 주님은 자비롭다.'

ghaḍibtu min ʔanna ʔl-bayḍata maksūratun.
I was angry that def-egg-ACC (was) broken-NOM
'나는 계란이 깨져서 화가 났다.'

(5) 능동문의 주어와 수동문의 주어가 된다.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는 수동문은 아랍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으므로 그 예는 생략한다.

shariba ?l-waladu ?l-qahwata.
drank-he def-boy-NOM def-coffee-ACC
'그 소년은 커피를 마셨다.'

(6) 호격사 yā와 ?ayyuhā(여성은 ?ayyatuhā) 뒤에 온다.

yā는 항상 비한정 단수 형태의 명사가 온다.

yā waladu.
oh boy-NOM
'얘야!'

호격사 ?ayyuhā는 항상 정관사가 뒤에 온다.

?ayyuhā ?l-muslimūna.
Oh def-muslims-NOM
'오, 무슬림들이여'

(7) 주격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나 동격 명사

?al-waladu ?l-ṭawīlu jamilun.
def-boy-NOM def-tall-NOM handsome-NOM
'그 키 큰 소년은 잘 생겼다.'

나. 목적격 (*naṣb*)³⁰⁾

(1) 타동사의 목적어(maf'ūlun bihi)를 나타낸다.

qaraʔtu kitāban.
read - I book - ACC
'나는 책을 읽었다.'

30) 아랍어의 목적격은 타동사의 목적어로 뿐 만아니라 여격, 부사어, 부정 구문, 제외사, 호격어 등 다양한 형태의 구문에서 쓰이며 이러한 현상은 유럽 언어나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수여동사 등 일부동사는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한다. 아랍어에서 간접목적어를 나타내는 여격 표지는 없으며 명사(목적격 [a]로 표지), 대명사 혹은 전치사로 나타낸다.

ʔaʔaytu Ḥasanan kitāban.
gave - I Hasan-ACC book-ACC
‘나는 하산에게 책을 주었다.’

cf. ʔaʔaytu la-hu kitāban.
gave - I to him(3rd. m. affixed pronoun) a book - ACC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2) 절대 목적어(ʔal-mafʕūlu ʔl-muṭlaqu)를 나타낸다.

동사가 자신의 동명사를 동적 목적어로 취해서 강조, 행위의 양태, 행위의 횟수 등을 나타낸다.

qaliqtu qalaqan.
was disturbed-I disturb-ACC
‘나는 매우 불안했다.’

(3) 시간, 장소 부사(mafʕūlu fihi)를 나타낸다.

tanabbahtu ṣabāḥan.
awoke - I in the morning-ACC
‘나는 아침에 깨었다.’

ʔiltafata yamīnan wa yasāran.
looked - he right-ACC and left-ACC
‘그는 오른쪽 왼쪽으로 쳐다보았다.’

sāfara barran wa baḥran.
travelled - he land-ACC and by sea-ACC

‘그는 육로와 해상으로 여행했다.’

cf. 이와 같이 부사로 사용되는 대격은 전치사구로 대체될 수 있다.

tanabbahtu fi ṣṣḥbāhi‘

awoke-I in the morning - GEN

‘나는 아침에 깨었다.’

ʔiltafata ʔila ʔl-yamīni wa ʔl-yasāri.

looked - he to the right - GEN and the left - GEN

‘He looked to the right and left.’

아랍어 전치사들은 본래 명사의 대격이 부사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khalfa(뒤에), fawqa(위에), taḥta(밑에), naḥwa(~쪽으로), qabla(전에), ba‘da(후에)

(4) 목적(ʔal-maf‘ūlu lahu)을 표현하는데 쓰인다. 이는 동명사의 대격으로 나타낸다.

qumtu ʔikrāman lahu.

rose- I honor-ACC to him

‘나는 그에 대한 예의로 일어섰다.’

(5) 상태어(Ḥal)를 나타낸다.

상태어는 주동사의 동작이 발생할 때 주어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나 상황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상태어는 분사나 형용사로 비한정 대격을 유지한다.

‘āda ʔl-waladu ʔila ʔl-bayti ḡāḥikan.

returned-he def-boy-NOM to def-house-GEN smiling-ACC

‘그 소년은 집에 웃으면서 돌아왔다.’

jāʔa Ḥasanun rākiban.

came-he Hasan-NOM riding-ACC

‘하산이 타고 왔다.’

또한 Hal의 대격은 직접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다.

jā'a rākiban ḥimāran ṭabyaḏa.

came-he riding -ACC donkey - ACC white-ACC

‘그는 흰색 당나귀를 타고서 왔다.’

(6) 구별 대격(tamyīz)을 나타낸다.

선행하는 명사의 의미와 애매함을 보완하여 명확히 하기 위해 쓰이는 명사 대격이다.

ʔanā ʔaktharu mālan minka.

I more-NOM wealth - ACC than you

‘나는 돈이 너보다 많다.’

또는 의문사 kam(얼마나 많은)의 뒤에 오는 명사도 대격을 취한다.

kam tuffaḥan fi l-maṭbakhi?

how many apples-ACC in the-kitchen-GEN?

‘주방에 사과가 몇 개 있습니까?’

(7) 동사 kāna와 자매어의 술어를 나타낸다.

아랍어에서는 현재 시제에서 영어의 be동사가 없어도 문장이 되지만 과거시제에서는 kāna동사가 필요하다. 이 동사의 술어는 대격을 취한다.

ʔal-waladu jamīlu. (현재시제)

def-boy-NOM handsome-NOM

‘그 소년은 멋있다.’

ʔal-waladu kāna jamīlan. (과거시제)

def-boy-NOM was handsome-ACC

‘그 소년은 멋있었다.’

kāna와 그 자매어란 kāna 동사와 같이 보어를 대격으로 갖는 동사들이다.
자매어는 다음과 같다.

- ㉠ ~이 되다 : ?ašbaḥa, ?amsa, šāra, bāta, zalla
- ㉡ 여전히~이다 : mā zāla
- ㉢ ~이 아니다 : laysa
- ㉣ ~하는 한 : mā dāma

kānat madīnatu baghdāda mashhūratan fī ?l-uṣūri ?l-uṣṭa.

was-she city-NOM Baghdad-ACC famous-ACC in def-Ages def-Middle
'바그다드 시는 중세에 유명하였다.'

mā zāla ḥazīnan.

did not cease-he to be sad-ACC

'그는 아직도 슬프다.'

laysa rajulan.

not-he a man-ACC

'그는 사람이 아니다.'

(8) 유도사 ?inna와 그 자매어들의 주어를 나타낸다.

명사문 유도사 ?inna와 그 자매어와 같은 불변사들과 함께 쓰이기도 하는데 이 불변사 바로 뒤에 주어를 대격 명사나 인칭 접미어를 주어로 한다. 술어는 주격을 취한다. 자매어에는 lākinna(그러나), la'alla(아마도), layta(~이었으면 좋겠는데), ka-?anna(마치~처럼)등이 있다.

명사문은 유도사 ?inna와 그 자매어와 같은 불변사들과 함께 쓰이기도 하는데 이 불변사 바로 뒤에 주어를 대격 명사나 인칭 접미어를 주어로 한다. 술어는 주격을 취한다. 자매어에는 lākinna(그러나), la'alla(아마도), layta(~이었으면 좋겠는데) 등이 있다.

?inna zaydan qā'imun.

(Truly) Zayd-ACC is standing-NOM.

‘(정말로) 자이드는 서있다.’

lākinna ?l-binta jamilatun.

but def-girl-ACC beautiful-NOM

‘그러나 그 소녀는 아름답다.’

dhahabtu ?ilā Zaydin la'allahu 'athara 'alā qalamī.

went-I to Zayd-GEN in the hope that he found pen-1st pronominal suffix

‘나는 자이드가 내 펜을 발견하였길 바라면서 그에게로 갔다.’

layta Hindan ḥādiratun ?al-yawma!

Would that Hind-ACC present-NOM def-day-ACC

‘힌드가 오늘 왔으면!’

(9) 절대 부정사 lā 다음에 나타난다.

문장에 정의된 장소나 상황에 있는 류(class or species)를 절대적으로 부정한다. 이 부정사 다음에는 비한정 상태(nunation)의 대격을 유지한다.

lā rajula fi ?l-bayti.

there is not a man-ACC in def-house-GEN

‘그 집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

(10) 제외사 ?illa는 대부분 대격의 명사가 온다. 긍정문에서는 반드시 대격을 취하고, 부정문에서는 대격 혹은 주격이 올 수 있다.

㉠ 긍정문에서는 반드시 대격을 취한다.

qāma 'l-jamī'u ?illa ?l-malika.

stood def-all except def-king-ACC.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다.’

㉠ 부정문에서는 대격 혹은 주격이 올 수 있다.

?illa Ḥasanan mā ḥaḍara ?al-talāmidhatu.

except Hasan-ACC did not attend def-pupils-NOM

‘하산을 빼고는 학생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11) 호격사 yā 다음에 명사가 속격의 지배를 받을 때

yā ?abā bakrin.

O abu-ACC bakr-GEN!

‘오 아부 바크르!’

yā ?amīra ?l-mu?minīn.

O Prince-ACC def-believers-GEN

‘오 신자들의 왕자이시여!’

(12) 대격이 여러 전치사 “with”, “by”, “during”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로 비교적 사용빈도가 낮다. 주로 시나 코란에서 많이 쓰인다.

sirtu wa ?nnīla.

travelled-I along def-Nile-ACC

‘나는 나일강을 따라서 여행했다.’

sāfartu wa ?llaylata.

travelled-I during def-night-ACC.

‘나는 밤 동안에 여행했다.’

sāfara zaydun wa ?akhāhu.

travelled-he Zaydun-NOM along with brother-ACC-his

‘자이드는 그의 형과 함께 여행했다.’

(13) 대격 명사나 다른 대격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나 다른 대격명사와 동격의 명사인 경우 대격이 사용된다.

ra?yту manzaran jamilan.
saw-I a scene-ACC beautiful-ACC
'나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다.'

ra?yту ?asadan wa filan.
saw-I a lion-ACC and elephant-ACC
'나는 사자와 기린을 보았다.'

(14) 감탄문에 쓰이는 동사의 목적어가 된다. 특히 동사가 생략 혹은 축약된 감탄문에서 대격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때 등위접속사 wa가 이러한 표현을 유도한다.

mā aḥsana Zayd-an.
what do good Zayd-ACC
'자이드는 얼마나 훌륭한가!'

특히 동사가 생략(fi'lun maḥdhūfun) 혹은 축약된 감탄문에서 대격이 나타난다.

marḥaban bika.
welcome-ACC to you
'어서 오세요(반갑습니다).'

cf. ?uraḥḥibu bika.
welcome-I you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mahlan.
slowly-ACC

‘천천히!’

cf. ?amhil !

‘Be slow!(imperative verb form).’

wa ?nnajāta ?nnajāta.

and escape-ACC! escape-ACC!

‘피해라! 피해라!’

(15) 경고와 권면을 나타내는 표현에 쓰인다.

?iyyāka wa-?l-nāra.

beware of-SUFFIX and-def-fire-ACC

‘불 조심해!’

(16) 부연설명으로 1인칭이나 2인칭 대명사 뒤에서 자만, 겸손, 명확성 등을 나타내기 위해 대격 명사가 쓰인다.

naḥnu ?l-ṭulāba nadrus bi-?jtihādin.

we def-students-ACC study-we with-diligence-GEN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17) 동반 대격으로 접속사 wa가 전치사 ma’a의 의미를 가지고 동사의 동작이 발생한 것에 수반됨을 알리기 위해 쓰인다.

sirtu wa ?l-jabala.

walked-I and def-mountain-ACC

‘나는 산을 따라 걸었다.’

다. 속격(jarrun)

(1) 명사의 연결형(iḡāfatun)에 쓰인다.

kitābu ?l-waladi.
book-NOM def-boy-GEN
‘그 소년의 책’

- (2) 전치사(ḥarfu jarrin)는 속격을 지배한다.

fi ?l-bayti.
in def-house-GEN
‘집에서’

- (3) 속격 명사의 수식어인 형용사도 속격의 의미를 가진다.

taḥta ?al-shajarati ?l-jamīlati.
under-ACC def-tree-GEN def-beautiful-GEN
‘아름다운 나무 밑에서’

- (4) 상용구 kullun(각각, 모두) 뒤에 쓰인다

kulla yawmin.
every-NOM day-GEN
‘매일’

제3절 한국어 격조사와 아랍어 격의 오류 분석

다음 문항은 한국어의 말하기와 듣기의 기본이 되는 문법 요소 중 하나인 한국어 격조사의 인지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 다음과 같이 쓰세요.

[예] 저()따뜻한 우유() 마셔요
→ 저(는) 따뜻한 우유(를) 마셔요

문제 1. 나() 빨간색() 좋아해요.

정답유형: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요.

정답: 44명

오답: 0명 (오답률: 0%)

위 문항 1에서는 주제를 나타내는 보조사 ‘-은/는’ 과 목적격 조사 ‘-을/를’의 쓰임을 알아보려고 하였는데 오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어 학습초기에 교육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문법사항으로서 초급 수준 학생들이 잘 숙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 2. 아버지() 중국() 있어요.

정답유형: 아버지(께서) 중국(에) 있어요.

정답: 40명

오답: 4명 (오답률: 9%)

오답 유형: 아버지께서 중국을 있어요.

아버지가 중국에서 있어요.

아버지는 중국에는 있어요.

문항 2에서는 주격조사 중 경어법의 ‘-께서’와 장소를 나타내는 ‘-에’와 ‘-에서’의 쓰임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아버지’라는 어휘에서는 경어법을 나타내는 주격조사 ‘-께서’를 사용하여야 하나 초급 수준의 학생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주격조사 ‘-이/가’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에’와 ‘-에서’는 문장에서 ‘있다’ 동사의 의미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사용된다는 점과 도착점, 출발점, 지향점에 따라 달리 사용이 되는 점을 아랍 학생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오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 3. 비행기() 타면 거기() 갈 수 있어요.

정답유형: 비행기(를) 타면 거기(에) 갈 수 있어요.

정답: 35명

오답: 9명 (오답률: 20%)

오답 유형: 비행기로 타면 거기로 갈 수 있어요.

비행기가 타면 거기에서 갈 수 있어요.

비행기는 타면 거기로 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거기에 갈 수 있어요.

문항 3에서는 부사격 조사 중 재료나 수단을 주로 표현하는 도구격 조사 ‘-로’의 쓰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오류 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적격 조사 ‘-을/를’은 ‘타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로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교통수단으로서의 ‘비행기’라는 의미만을 보고 수단을 나타내는 도구격 조사 ‘-로’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문제 4. 은행() 극장() 오른쪽() 있어요.

정답유형: 은행(은) 극장(의) 오른쪽(에) 있어요.

은행(이) 극장(의) 오른쪽(에) 있어요.

은행(과) 극장(은) 오른쪽(에) 있어요.

정답: 21명

오답: 23명 (오답률: 52%)

오답 유형: 은행을 극장의 오른쪽에 있어요.

은행도 극장이 오른쪽에 있어요.

은행이 극장을 오른쪽에 있어요.

은행은 극장도 오른쪽에 있어요.

문항4에서는 ‘오른쪽’이라는 어휘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를 잘 사용하여 이 부분에서는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들이 ‘은행’과 ‘극장’을 연결하는 접속조사 ‘-와/과’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는 보조사 ‘-은/는’과 주격조사 ‘-이/가’를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였고, 포함이나 더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도’를 사용하면서 이 부분에서 아랍인 학습자들이 혼동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특히 어휘와 어휘를 연결하는 접속조사의 사용에서 취약함을 드러냈다. 그리고 동사 ‘있다’와는 쓸 수 없는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함으로써 오답이 발생했다고 보여진다.

문제 5. 친구() 사진() 봐요.

정답유형: 친구(가) 사진(을) 봐요.

친구(는) 사진(을) 봐요.

친구(의) 사진(을) 봐요.

정답: 37명

오답: 7명 (오답률: 16%)

오답 유형: 친구(를) 사진(을) 봐요.

친구(에게) 사진(을) 봐요.

친구(가) 사진(에) 봐요.

위의 문항에서는 주격조사 ‘-이/가’와 문장의 주제를 나타내는 보조사 ‘-은/는’이 문장의 주어임을 표시해 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그리고 ‘친구’라는 어휘와 부사격 조사 중 처소(도착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에게’를 사용해도 오류가 없다고 보여지나 뒤에 ‘보다’라는 특정 동사가 있어 어법에 맞지 않는다.

제4장 한국어와 아랍어의 통사론적 특징

언어를 이루는 언어 요소의 하나인 언어의 배열 순서를 어순이라고 한다. 31)어순은 새로운 외국어를 배울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다. 아무리 많은 수의 단어를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틀을 갖춘 말이나 뼈대가 잡힌 문장으로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말이나 문장 외에도 비언어적 수단에 의존해서 혹은 단어 몇 개를 나열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의 의미가 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언어를 제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단지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대다수의 언중이 사용하는 문장, 일정한 규칙에 의해 잘 꿰어진 문장을 발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32)

한국어에서는 단어와 통사 단위인 문장 성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문장을 어순 연구의 대상으로 본다면, 어순은 각 문장 성분 사이의 상대적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언어에 따라 이러한 문장 성분의 상대적 위치는 문법 범주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언어에서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어순이 문법 범주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 아랍어가 될 것이고 후자는 바로 한국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에 학습자의 모국어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므로 목표어인 한국어와 모국어인 아랍어 사이의 어순을 중심으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제1절 한국어의 어순33)

31) 이영주, “러시아권 학습자를 위한 한·러 어순 대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p. 3.

32) 1990년대에 외국어 교육 전반에서는 ‘언어교육은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H. Douglas Brown 2002 참조.) 이에 맞 맞추어 한국어 교육에서도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배워도 언어 사용의 정확성에서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한계에 이르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좀 더 정확성을 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3) 남기삼·고영근, op.cit., p. 234-264.

국립국어원, op.cit., p. 47-55.

1. 한국어의 어순

한국어는 격조사가 발달되어 있다. 격조사는 명사 구실을 하는 요소 뒤에 붙어 그 요소가 문장 내에서 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예> (1)준호가 현주를 사랑한다.

예문(1)에서 주격조사 '가'는 '준호'가 주어임을, 목적격조사 '를'은 '현주'가 목적어임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격조사를 통해 명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기능이 드러난다. 따라서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문장 성분은 그 위치가 바뀌어도 격조사를 통해 그 기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는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라고 한다.

위의 예문(1)과 다음 예문(2)를 비교해 보면 주어와 목적어의 어순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예> (2)현주를 준호가 사랑한다.

예문(2)는 목적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이동해 있다. 이처럼 목적어와 주어의 위치가 바뀌어도 (1)과 (2)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같다. 다만 (1)에 비해 (2)에는 목적어를 강조하는 문체적 의미만 첨가될 뿐이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주어와 목적어는 강조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식하는 말은 항상 수식을 받는 말 앞에 놓인다. 또 조사는 항상 명사 뒤에 붙으며 보조동사는 항상 본동사 뒤에 놓인다. 이런 경우는 어순이 고정된 경우이다.

한국어에서 서술어는 주어나 목적어와 다르게 문장의 마지막에 놓이는 것이 보통이다.

<예> (1) 준호가 신문을 본다.

(2) 신문을 준호가 본다.

위와 같이 볼 수 있듯이 서술어 '본다'는 문장의 맨 마지막에 온다. 그런데 서술어 역시 강조를 위해서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가. 주어 + 서술어

한국어 문장은 최소한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로 구성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서술어 앞에 와야 한다.

<예>

- (1) 아이가 운다.
- (2) 꽃이 핀다.

나.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한국어에서 목적어는 주어 뒤에 서술어 앞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 (1) 그 학생이 편지를 쓴다.
- (2) 그가 선물을 산다.

2. 한국어의 어순상의 특징

가. 수식하는 말 + 수식받는 말

한국어에서는 보통 수식을 받는 말이 수식하는 말의 뒤에 온다.

<예>

- (1) 새 ㄴ차
- (2) 내가 사랑하는 ㄴ여자
- (3) 준호의 ㄴ책

위와 같이 한국어에서 관형사나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말이 명사를 앞에서 꾸며 주는 경우이다. 그런데 다음은 부사나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말이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그 앞에서 꾸며 주는 예들이다.

<예>

- (1) 준호는 천천히 ㄴ 걷는다.
- (2) 영미는 무척 ㄴ 아름답다.
- (3) 철수는 매우 ㄴ 빠르게 ㄴ 달린다.

위의 (1)과 (2)에서는 부사 '천천히'와 '무척'이 각각 동사 '걷는다'와 형용사 '아름답다' 앞에 와서 이들을 꾸며 준다. (3)에서는 부사 '매우'가 다른 부사어 '빠르게' 앞에 와서 수식하고, 그 부사어 '빠르게'가 동사 '달린다'를 앞에서 수식한다. 이처럼 '부사'는 동사, 형용사와 다른 부사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관형사보다는 어순이 자유롭다.

나. 명사 + 조사

한국어에서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문장 안에 쓰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들의 뒤에 조사가 붙어야 한다.

<예> 철수-가 영화-를 길-에서 만났다.

'철수'뒤에는 '철수'가 주어임을 나타내는 조사 '가'가, '영화'뒤에는 '영화'가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조사'를'이 붙었다. 그리고 '길'뒤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서'가 붙었다. 주목할 것은 이 모든 경우에 조사가 명사 뒤에 온다는 것이다.

다. 본동사 + 보조동사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조동사가 본동사 뒤에 온다. 대체로 SOV 언어에서는 보조동사가 본동사 뒤에 와야 한다.

<예>

(1) 나는 문을 열어 보았다.

(2) 바쁘실 텐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1)에서는 보조동사 '보았다'가 본동사 '열어'뒤에 왔으며, (2)에서는 보조동사 '주셔서'가 본동사 '와'뒤에 왔다.

3. 한국어의 기본 문형

한국어의 기본 문형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가 서로 어울려 만들어진다.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이거나 서술어가 나타내는 상태, 속

성의 대상이고, 서술어는 주체나 대상을 서술하는 말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문형은 '주어+서술어'이다. 그런데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서는 주어, 서술어 이외에 목적어나 보어, 부사어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 목적어는 서술어가 표현하는 주체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이며,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다. 또 부사어는 서술어의 행위가 일어난 장소나 시간, 원인 및 행위가 일어나는 데 쓰이는 재료나 도구, 수단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서술어의 기본적인 위치가 문장 맨 끝이므로 목적어와 보어, 필수적 부사어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놓이게 된다.

가. 주어 + 서술어

꽃이 핀다.

나. 주어 + 부사어 + 서술어

영미가 의자에 앉았다.

다.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영미는 준호를 사랑한다.

라. 주어 + 보어 + 서술어

준호는 어른이 되었다.

마.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 서술어

영미는 준호를 천재로 여긴다.

가는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되며, 나는 가에 필수적 부사어가 들어간 것이고, 다는 가에 목적어가, 라는 가에 보어가, 마는 가에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가 들어간 것이다.

제2절 아랍어의 어순³⁴⁾

기본적으로 아랍어 어순은 아랍어 문장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전통 문법에서 아랍어 문장은 명사문과 동사문으로 구분되는데 문어체 아랍어로 쓰여진 문장 (literary prose)에서는 VSO의 동사문 구조가 가장 선호되는 기본 어순이다. 그러나 구어체 아랍어의 대화체 문장에서는 SVO의 어순이 보다 일반적이다. 본고에서는 문어체 아랍어의 어순을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가. 동사문 - 동사 + 주어³⁵⁾

동사문(Verbal sentence)은 문장의 순서가 동사 + 주어의 순으로 시작되는 문장으로 이때 동사가 주어를 포함할 경우도 있다.

<예>

dakhala *?al-waladu* *?al-ghurfata*.

entered def-boy-NOM def-room-ACC

‘그 소년은 그 방에 들어갔다’

나. 명사문 - 주어 + 동사

명사문(Nominal sentence)은 문장의 순서가 주어 + 동사의 순서로 시작되는 문장이거나 동사가 없는 문장을 말한다.

<예>

?al-waladu kabirun.

def-boy-NOM tall

‘그 소년은 키가 크다’

34) 사회만, “아랍어의 어순”, (세계 주요 9개 언어 비교 포럼 발표자료, 전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03), p. 33-46.

송경안·이기갑 외, 「언어유형론 1」, (서울: 월인, 2008), p. 422-432.

35) 아랍어는 동사 형태를 기본적으로 완료형과 미완료형으로 구분한다.

명사문 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사가 사용되지 않는다.³⁶⁾ 위 예문에서처럼 주어
 어가 한정, 술어가 비한정 상태이고 현재 시제인 경우 영어의 be 동사와 같은 계사
 가 쓰이지 않고도 문장이 될 수 있다.

다. 아랍어 문장의 일반적인 어순

아랍어 문장의 일반적인 어순은 동사문의 어순인 “동사 + 주어 + 목적어 + 부
 사구”의 순서이다.

<예>

dakhala *?al-rajulu* *?al-ghurfata* *ṣabāḥan*.

entered def-man-NOM def-room-ACC morning-ACC

‘그 남자는 아침에 그 방에 들어갔다’

(1) 주어가 비한정이고 술어가 전치사구일 때 문장은 도치된다.

<예>

fi *?al-maṭāri* *tā?iratun*.

in def-airport-GEN plane-NOM

‘그 비행장에 비행기가 있다.’

(2) 아랍어의 한정 명사는 비한정 명사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예>

qatala *?l-jundiyyu* *mujriman*.(VSO)

killed def-soldier-NOM criminal-ACC

‘그 군인은 범인을 죽였다.’

qatala *?al-jundiyya* *mujrimun*.(VOS)

killed def-soldier-ACC criminal-NOM

‘한 범인이 그 군인을 죽였다.’

36) Ibid., p. 422.

따라서 동사문에서 주어와 비한정어면 주어와 목적어 뒤에 오게 되는 VOS의 어순도 가능하다.

<예>

daxala ?al-bayta rajulun.(VOS)

entered def-house-ACC man-NOM

‘한 남자가 그 집에 들어갔다.’

VOS를 보여주는 위 두 예문은 각각 의미론적으로는 “(한) 범인이 그 군인을 죽였느냐?” “(한) 남자가 그 집에 들어갔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적합한 문장이 된다.

(3) 주제화(Topicalization) 규칙에 따라 SOV, OVS의 변형 어순도 가능하나 실제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기본문 : ?ishtara **Muhammadun** kitāban. (VSO)

bought Muhammad-NOM book-ACC

‘무함마드가 책을 샀다.’

(a) **Muhammadun** kitāban ?ishtara. (SOV)

Muhammad-NOM book-ACC bought

‘무함마드가 책을 샀다.’

(b) kitāban ?ishtara **Muhammadun**. (OVS)

book-ACC bought Muhammad-NOM

‘무함마드가 책을 샀다.’

위 예문 모두 구문상의 의미는 “무함마드가 책을 샀다”이다. 그러나 예문 (a)의 어순은 주체어인 Muhammad에 대한 서술로서 새로운 의미의 정보는 어휘 kitāban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이 경우 심층 구조의 의미상 질문은 ‘무함마드의 경우는 무엇을 샀느냐’

냐'에 대한 대답으로 간주된다.

예문 (b)의 어순은 화용론적 기능(pragmatic function)에 부합된다. 즉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무함마드가 산 것은 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어순이다.

제3절 어순 오류 분석

다음 첫 번째 문항은 한국어 문장의 배열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문항에서는 번역을 통한 한국어 어순에 대한 인지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 문항 - 문장 배열]

※ 다음과 같이 쓰세요.

나는 / 갔어요 / 학교에 → 나는 학교에 갔어요.

문제 1. 몇 / 명 / 왔어요 / 학생이

정답유형: 학생이 몇 명 왔어요?

정답: 27명

오답: 17명 (오답률: 39%)

오답 유형: 학생이 몇 명 왔어요.

몇 명 학생이 왔어요?

몇 학생이 명 왔어요.

문제 2. 어디로 / 갔어요 / 지난해에는 / 여행을

정답유형: 지난해에는 여행을 어디로 갔어요?

지난해에는 어디로 여행을 갔어요?

정답: 25명

오답: 19명 (오답률: 43%)

오답 유형: 지난해에는 여행을 어디로 갔어요.

 지나해에는 어디로 여행을 갔어요

문제 3. 갈래요 / 식당에 / 같이 / 가는데

정답유형: 식당에 가는데 같이 갈래요?

정답: 20명

오답: 24명 (오답률: 55%)

오답 유형: 식당에 가는데 같이 갈래요.

 식당에 같이 가는데 갈래요?

 같이 식당에 가는데 갈래요?

위 세 문항은 의문문을 만드는 것으로 한국어 부사의 위치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였다. 문항 1에서는 ‘수사+명사’의 어순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였고, 주어 가 문두에 위치해야하나 ‘수량표현 의문사+명사’의 수량사구가 동사에 선행하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오류가 발생하였다. 문항 2에서는 어순 상에서는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문문임에도 불구하고 온점(.)을 찍는 오류를 범하였다.

문항 3에서는 복문으로 ‘가다’라는 동사가 2번 나타나는데 첫 번째 동사 ‘가다’는 어미 ‘-는데’가 접미되어 문장 내에서 배경 또는 상황의 의미로써 문장을 연결하여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동사 ‘가다’는 부사 ‘같이’와 사용하여 문장의 서술어 부분에 위치하여야 하나 부사의 위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오답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 4. 한 / 아침에 / 마셨어요 / 잔을 / 주스

정답유형: 아침에 주스 한 잔을 마셨어요.

정답: 40명

오답: 4명 (오답률: 9%)

오답 유형: 아침에 한 주스 잔을 마셨어요.
아침에 한 잔을 주스 마셨어요.

위 문항에서는 ‘수사+단위명사’와 꾸밈을 받는 명사의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어에서는 수사가 단위명사 앞에 쓰이고 동시에 꾸밈을 받는 명사 뒤에 위치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꾸밈을 받는 명사 ‘주스’를 수사와 단위 명사 사이에 넣는가 하면 수사와 단위명사 뒤에 넣는 등의 오류를 범하였다.

문제 5. 끝나서 / 돌아가고 싶어요 / 유학이

정답유형: 유학이 끝나서 돌아가고 싶어요.

정답: 44명

오답: 0명 (오답률: 0%)

위 문항에서는 ‘유학이’ 주어에 위치하고 보조동사 ‘끝나서’와 본동사 ‘돌아가고 싶어요’가 연결되는 구문으로서 비교적 문장의 수준이 단순하여 오류가 일어나지 않았다.

[두 번째 문항-문장 번역]

※ 다음을 번역하세요.

1. أنا عربي. → ()

정답유형: 저는 아랍사람입니다.

정답: 41명

오답: 3명 (오답률: 7%)

오답 유형: 저는 아랍입니다.

위 문항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어순에 대한 번역은 오류가 없었으나 서술어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국가명+사람’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데 ‘아랍’이라는 국가명만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2. **كيم يلبس قبعة.** → ()

정답유형: 김 씨가 모자를 씩니다.

정답: 27명

오답: 17명 (오답률: 39%)

오답 유형: 김 는 모자 씩니다.

김 씨는 모자를 입고 있습니다.

김이 모자를 입어요.

위 문항에서는 어순상의 오류라기보다는 어휘표현에서의 오류를 보여주고 있는데 착용동사를 잘못 이해하였다. 모자나 안경 등은 ‘쓰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입다’를 사용하였다.

3. **سوف أقابل صديقي أو أسافر.** → ()

정답유형: 저는 친구를 만나거나 여행을 갈 거예요.

정답: 34명

오답: 10명 (오답률: 23%)

오답 유형: 내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나거나 여행을 가요.

제 친구를 만나거나 여행을 해요.

위 문항에서는 어순보다는 문법의 시제 부분에서 오류를 나타냈다. 학생들이 미래형 ‘-ㄹ(을) 거예요’와 ‘-겠어요’를 사용해야 할 문장에서 현재형을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어 현재형만으로 가까운 미래를 표현 할 수 있으나 위 번역 문제에서는 미래사 سوف가 들어가면서 명시적으로 미래형을 사용했어야 한다.

4. اكتب رقم الهاتف من فضلك. → ()

정답유형: 전화번호를 써 주세요.

정답: 35명

오답: 9명 (오답률: 20%)

오답 유형: 전화번호를 좀 써세요.

전화번호 쓰고 주세요.

전화번호 쓰세요.

전화번호 씹시다.

위 문항은 공손한 표현의 의미진달과 부사어의 어순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아랍어 من فضلك가 공손함을 나타내는 아랍어 구절로 한국어에서도 경어법 표현을 하여야 하는데 학생들이 이 표현을 생략하거나 ‘전화번호 쓰세요’와 같은 명령형 문장이나 ‘전화번호 씹시다’와 같은 청유형의 작문을 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5. ما أعلى جبل في العالم؟ → ()

정답유형: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엇입니까?

정답: 35명

오답: 9명 (오답률: 20%)

오답 유형: 세계에서 어떤 제일 높은 산입니까?

무슨 높은 산 있어요?

세계중에서 무슨 키가 큰 산입니까?

세상에는 제일 높은 산이 뭐예요?

위 문항에서는 최상급 표현에서의 부사어와 관형어의 위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어에서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형용사 ‘높은’이 명사 ‘산’을 꾸며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는 학생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또한 최상급을 표현하는 부사어 ‘세계에서’가 문두에 위치하여 다른 관형어를 꾸며주는 부분에서도 큰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휘 부분에서 초급 수준의 학생들이 ‘키가 크다’와 ‘산이 높다’의 표현을 혼동하였다. 이와같이 학생들이 어순 보다는 어휘나 문법 등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였다.

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계통이 전혀 다른 한국어와 아랍어를 음성학, 형태론, 통사론의 언어층위에서 각 언어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이를 토대로 오류분석을 위한 설문문항을 작성한 후 이집트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과정에서의 오류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오류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이 아랍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수법과 학습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2장에서는 아랍 학생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한국어 자음과 모음을 알아보았다. 자음의 경우 아랍어에 존재하지 않는 평음-격음-경음화 사이에서의 발음을 어려워하였고, 모음의 경우 단순한 모음 체계를 갖춘 모국어의 간섭에 의해서 이중모음에서 오류를 범하는 학습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발음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교사는 한국어 음성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습득과 발음 교육의 청취-식별-생성 과정 및 학습자 모국어의 음성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 성인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모국어 발음에 용이하도록 굳어져 있는 조음 기관을 꾸준히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제 3장에서는 형태론적 측면에서 한국어 격조사와 아랍어 격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랍어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등의 3격 체계인 반면에 한국어는 그 격조사가 6격으로 보다 다양한 격 체계를 갖춘 언어임을 알았다. 한국어 초급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류 분석에서는 경어법과 한국어 격조사 장소를 나타내는 ‘에’와 ‘에서’, 재료나 수단을 주로 표현하는 ‘-로’, 목적격의 ‘-을/를’의 쓰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류가 주로 발생하였다.

제 4장에서는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양 언어의 어순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았는데, 양 언어 모두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에 속하는 언어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는 SOV(주어+목적어+동사), 아랍어는 VSO(동사+주어+목적어)의 어순을 갖고 있음을 알았다. 양 언어의 어순 차이에 따른 오류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류분석의 결과 어순과 관련된 오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수량표현 의문사+명사’의 수량사구에서만 모국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가 나타났음을 알았다. 오히려 ‘수사+단위명사’, 어휘의미, 시제 등 통사층위의 하위 문법부분에서 많은 오류가 나타났다.

외국어 교육의 목적은 그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동시에 목표어가 속한 사회에 대한 문화나 관습 등 언어 외적인 환경을 알고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대화를 할 때 또는 문장을 만들 때 주체와 객체가 바뀌는 등 여러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 교수자는 한국어 뿐 만 아니라 아랍인 학습자의 모국어인 아랍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학습자의 모국어인 아랍어와 한국어를 대조하여 그 차이점들을 미리 숙지하고 교육에 임함으로써 수업 시 학습자의 어려움과 오류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아랍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자료 및 국내 논저>

-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5)
- 김종도, 「알기쉬운 아랍어 문자 읽고 쓰기」, (서울: 명지대출판사, 2000)
- _____, 「알기쉬운 아랍어 첫걸음」, (서울: 명지대출판사, 2000)
- 픽셀 튀르코취, “터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 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1998)
- 남기심·김진우·이상억, 「국어음운론」, (서울: 학연사, 1987)
- 남기심·이정민·이홍배, 「언어학개론 개정판」, (서울: 탑출판사, 1986)
- 박재양, “꾸란 정음법 연구”, (한국이슬람학회, 2001)
- _____, “아랍어의 음운규칙 연구”,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2001)
- 사회만, “아랍어의 격”, (세계 주요 9개 언어 비교 포럼 발표 자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4)
- _____, “아랍어의 어순”, (세계 주요 9개 언어 비교 포럼 발표 자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4)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편, 「한국어」 1급, (서울: 풍남도서출판, 1998)
- 성균어학원 한국어교재 편찬위원회, 「말하기 쉬운 한국어 1」,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 송경안·이기갑 외, 「언어유형론 1」, (서울: 월인, 2008)
- _____, 「언어유형론 2」, (서울: 월인, 2008)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한국어」 1급,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 _____, 「한국어 발음」,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 이규철, “한국어와 아랍어의 음절 대조 연구”, (한글학회, 한글 제185호, 1984)

이기문·김진우·이상억, 「국어음운론」, (서울: 학연사, 1984)

_____, 「국어음운론」, (서울: 학연사, 1987)

이명원, “국어의 아랍문자 표기에 관한 연구-국어와 아랍어 음운비교를 바탕으로-”, (중동문제연구소 연구논총, No. 7, 1988)

이영주, “러시아권 학습자를 위한 한·러 어순 대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 2005)

이종택, 「현대표준아랍어」, (서울: 명지대학교 출판부, 1995)

이현복, 「국제음성문자와 한글음성문자」, (서울: 과학사, 1981)

이호영, 「국어음성학」, (서울: 태학사, 1996)

임호빈 외 공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허용, 「국어음운학 우리말 소리의 어제·오늘」, (서울: 샘문화사, 1985)

홍혜련, “태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05),

<국외 논저>

Al^ʿanbaari, 'abu al-barakaat(ND), 'asraar al^ʿarabiiyah, (Damascus).

Al-faakihii, 'abd al-laah, sharH al-fawaakihii, maktabat wahbah, (Cairo, 1993)

Al-jurjaanii, 'abd al-qaahir (1988), al^ʿawaamil al-mi'ah, daar al-m'aarif, (Cairo)

Bashar, Kamāl. al-ʿAṣwāt al-ʿarabiiyah. (Cairo: Maktabah al-Shabāb, 1990)

al-Barakāwī, ʿAbdu al- Fataḥ.. Muqaddamah fi ʿAṣwāti al-Lughah

al-ʿAeabiyyah, (Cairo: Muʿassasat al-Risālah, 1984)

كمال محمد بشر ، علم اللغة العام - الأصوات ، دار المعارف ، القاهرة ، ١٣٦١ ، ص ٩٧٣

أحمد مختار عمر ، دراسة الأصوات اللغوية ، علم ، الكتب ، القاهرة ، ١٩٦٧ ، ص ٢٧٤

부록 1. [제1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랍이슬람학과 석사 과정에 있는 김정입니다. 현재 석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논문의 주제는 아랍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السلام عليكم، أنا كيم جونج باحثة بقسم اللغة العربية والدراسات الإسلامية بكلية الدراسات العليا بجامعة تشوون، وأعدتُ بحثًا للحصول على حول تدريس اللغة الكورية للدارسين العرب. وبداية يطيب لي أن أشكركم على حسن تعاونكم)

1. 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까? 하나 이상 선택해도 좋으며, 중요한 순서에 따라 번호를 쓰세요.
(لماذا تدرس اللغة الكوريتهم ضع علامة حول الإجابة أو الإجابات التي تراها مناسبة)

- () 일/공부. (العمل / الدراسة)
() 친구 사귀기. (تكوين صداقات)
()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 (مهتمم بالثقافة الكورية)
() 한국어에 관한 관심. (مهتمم باللغة الكورية)

2. 얼마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까?

(ما المدة التي درست خلالها اللغة الكوريتهم)

()

3.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ما أصعب شيء تواجهه عند دراستك للغة الكوريّة؟)

a. 말하기(التحدث)

b. 듣기(الاستماع)

c. 쓰기(الكتابة)

d. 읽기(القراءة)

4. 그러면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إنّ، ما أسهل شيء تجده خلال تعلم اللغة الكوريّة؟)

a. 말하기(التحدث)

b. 듣기(الاستماع)

c. 쓰기(الكتابة)

d. 읽기(القراءة)

5. 한국어과를 졸업한 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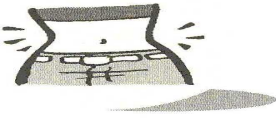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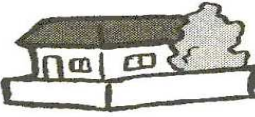




(ما هي خططك المستقبلية بعد التخرج من قسم اللغة الكورية؟)

[شكرًا جزيلا]

부록 2. [제2차 설문조사]

1. 그림을 보면서 듣고 알맞은 곳에 √ 하세요.

(انظر إلى الصورة واستمع ثم اختر الكلمة المناسبة)

	<input type="checkbox"/> 허리 <input type="checkbox"/> 호리 <input type="checkbox"/> 후리 <input type="checkbox"/> 허니		<input type="checkbox"/> 파리 <input type="checkbox"/> 빠리 <input type="checkbox"/> 바리 <input type="checkbox"/> 버리
	<input type="checkbox"/> 소리 <input type="checkbox"/> 쏘리 <input type="checkbox"/> 씨리 <input type="checkbox"/> 서리		<input type="checkbox"/> 초사 <input type="checkbox"/> 쭈사 <input type="checkbox"/> 주사 <input type="checkbox"/> 추사
	<input type="checkbox"/> 공 <input type="checkbox"/> 공 <input type="checkbox"/> 곤 <input type="checkbox"/> 골		<input type="checkbox"/> 종 <input type="checkbox"/> 존 <input type="checkbox"/> 줌 <input type="checkbox"/> 즐
	<input type="checkbox"/> 별 <input type="checkbox"/> 범 <input type="checkbox"/> 병 <input type="checkbox"/> 변		<input type="checkbox"/> 동 <input type="checkbox"/> 돈 <input type="checkbox"/> 돔 <input type="checkbox"/> 돌
	<input type="checkbox"/> 섬 <input type="checkbox"/> 성 <input type="checkbox"/> 선 <input type="checkbox"/> 손		<input type="checkbox"/> 짐 <input type="checkbox"/> 집 <input type="checkbox"/> 즈 <input type="checkbox"/> 진
	<input type="checkbox"/> 다 <input type="checkbox"/> 달 <input type="checkbox"/> 탈 <input type="checkbox"/> 타		<input type="checkbox"/> 창 <input type="checkbox"/> 장 <input type="checkbox"/> 창 <input type="checkbox"/> 장
	<input type="checkbox"/> 구 <input type="checkbox"/> 구 <input type="checkbox"/> 구 <input type="checkbox"/> 구		<input type="checkbox"/> 자 <input type="checkbox"/> 자 <input type="checkbox"/> 차 <input type="checkbox"/> 차

2. 듣고 알맞은 곳에 √ 하세요. (اسمع واختر الكلمة الصحيحة)

㉠ □ 아이 □ 오이 □ 아기 □ 어머니

㉡ □ 우유 □ 우산 □ 오이 □ 우표

㉢ □ 여구 □ 야구 □ 요구 □ 유구

㉣ □ 요우 □ 유우 □ 여우 □ 여유

㉤ □ 오른 □ 으른 □ 우른 □ 어른

㉥ □ 왜 □ 위 □ 애 □ 에

3. 잘 듣고 알맞은 곳에 √ 하세요. (اسمع واختر الكلمة الصحيحة)

ㄱ. □ 거기 □ 고기 □ 그기

ㄴ. □ 여기 □ 야기 □ 얘기

ㄷ. □ 너무 □ 나무 □ 노무

ㄹ. □ 특히 □ 터키 □ 타키

ㅁ. □ 놀다 □ 날다 □ 널다

ㅂ. □ 끄다 □ 크다

ㅅ. □ 살 □ 쌀

ㅇ. □ 바르다 □ 빠르다

ㅈ. □ 타다 □ 따다

ㅊ. □ 발 □ 팔

ㅋ. □ 불 □ 풀 □ 뿔

ㅌ. □ 달 □ 탈 □ 딸

ㅍ. □ 자다 □ 차다 □ 짜다

ㅎ. □ 강 □ 감 □ 간

4. 다음과 같이 쓰세요. (اتبع المثال التالي واكتب الجمل التالية بشكل صحيح)

나는 / 갔어요 / 학교에 → 나는 학교에 갔어요.

♣ 몇 / 명 / 왔어요 / 학생이

→ _____

♣ 어디로 / 갔어요 / 지난해에는 / 여행을

→ _____

♣ 한 / 아침에 / 마셨어요 / 잔을 / 주스

→ _____

♣ 끝나서 / 돌아가고 싶어요 / 유학이

→ _____

♣ 갈래요 / 식당에 / 같이 / 가는데

→ _____

5. 다음과 같이 쓰세요. (اتبع المثال التالي واكتب الجمل التالية بشكل صحيح)

저()따뜻한 우유() 마셔요
→ 저(는) 따뜻한 우유(를) 마셔요

♣ 나() 빨간색() 좋아해요.

♣ 아버지() 중국() 있어요.

♣ 비행기() 타면 거기() 갈 수 있어요.

♣ 은행() 극장() 오른쪽() 있어요.

♣ 친구() 사진() 봐요.

6. 다음을 번역하세요. (من فضلك، ترجم الجمل التالية إلى اللغة الكورية)

أنا عربيٌّ → _____.

كيم يلبس قُبْعَةً → _____.

سوف أقابل صديقي أو أسافرُ → _____.

اكتب رقم الهاتف من فضلك → _____.

ما أعلى جبلٍ في العالمِ؟ → _____?

7. 자기소개서를 하세요. (. قَدِّم نفسك باللغة الكورية من فضلك)

[شكرًا جزيلًا]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아랍이슬람학과	학 번	20047007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김정	한문: 金貞	영문: Kim Jeong		
주 소	전남 순천시 조례동 금당 대림아파트 102동 1205호				
연락처	E-MAIL : nandagu@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아랍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영어 : A Study on Teaching Korean Language for the Arab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2009년 2월

저작자: 김 정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